

[한겨레신문] 헌책방 순례

[한겨레신문] 헌책방 순례

임종업 기자



일러두기

- 한겨레신문은 매주 금요일 북 섹션을 별도의 지면으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18.0°’라는 제목으로 타블로이드판을 32쪽 가량 구성하는데요, 여타 신문에 비해 더 많은 지면을 북 섹션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언제부터인가 북 섹션의 말미에 [헌책방 순례]라는 코너가 있는데 헌책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신촌의 직장에서 근무하던 시절부터 자주 가던 ‘숨어있는 책’부터 개포동 ‘서적백화점’ 등 서울 곳곳의 헌책방과 지방의 유명 헌책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좋은 글을 게재해주고 계신 임종업 기자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Copyright © 2006, 임종업 · 한겨레신문

L^AT_EX 2_ε, memoir 클래스, hangul-ucs로 편집 (이주호)

2005년 한글날 한겨레신문에서 공개한 한겨레결체를 바탕 글꼴로 삼다.

KTUG, Korean T_EX Users Group

차 례

일러두기	ii
1 뽕양계 쌓인 세월의 먼지 속 ‘권력장’ ‘한자고음사전’ 눈맞춤	3
2 베스트셀러 · 어린이책 많은편	4
3 없는책 없는 ‘거리 도서관’	6
4 유리문 책장안에 귀중본 한 꾸리	7
5 권력암투 다룬 소설 ‘명주기봉’이?	9
6 10년앞 보며 온라인으로 걸음마	11
7 천장엔 50년대 동화책이 ‘둥둥’	12
8 주인만 만난다면 값이야 ‘그까이꺼’	14
9 엘피판, 영화포스터... 책아닌 것들의 유혹	16
10 제비도 쉬었다 가는 고즈넉한 한옥 풍경	17
11 온라인 · 오프라인 책공간 절반씩 동거	19
12 비닐봉지에 해방 직후 시집 · 소설 한가득	21
13 손님과 술마시다 조르면 그냥 넘겼지요	23
14 시장 오가는 사람만큼 책 드나들도 분주	24
15 “해방전후 나온 책 정리되면 구경오세요”	26
16 책 팔다 째째이 고물도 팔지요	28
17 소박한 책장과 소박한 밥상	29
18 유행 타지 않는 ‘고전’을 주인대접	31
19 “70년대엔 영문 카탈로그 엄청 팔았지”	33
20 신간안내에서 본 책들이 벌써...	34
21 산더미처럼 많은 책 고르는 재미 쏠쏠	36
22 여기 아니면 없는 책 두루두루 눈에 띄네	38

23	‘책 창고’ 같은 4평 공간서 ‘보석’ 건지는 눈 밝은 단골들	39
24	‘문화쓰레기’는 다 버리고 좋거나 잘팔리는 책만 오롯이	41
25	정갈한 책에 반하고 책값 인심에 또한번 반하고	43
26	책도 책손님도 예우받는 곳 마음 고픈 사람 다 모여라	45
27	인터넷 거래 주로 하지만 찾아오는 손님이 더 반갑다.....	47
28	논팔아 50년전 시작한 천직 손님 적다고 그만둘수 없죠	49
29	시험 관련 책만 찾는 대학생 외국인들 왕성한 책욕심 배웠으면 ...	50
30	형제가 함께하는 인터넷서점 재고 4만권... 3만원 이상 무료배송 ..	52
31	인간의 궤적이 패총처럼 쌓인곳 감히 ‘순례’라 일컫는 까닭이다— 헌책방 순례 뒤돌아보기	54
32	어지럽게 쌓인 ‘관찰은’ 책들 한번 쓱 보는데도 30분 걸려	56
33	눈길 끄는 쟁쟁한 역사자료 많아... 적자 메우려 중고 물품도 판매 .	58
34	전국 유일의 기독교책 전문점 이익금은 선교활동에 보태	63
35	상태 좋은 책 체계적 분류... 입금 당일 배송 원칙 지켜	64
36	‘아름다운 가게’서 뺏어나온 책방... 책은 기증받고 직원은 자원봉사	66
37	밥벌이도 힘든 ‘35년 책장사’ “밥없인 못살지” 음식장사 할 작정 ..	68
38	지하+2층, 100평에 꽂찬 책... 전국서 제일 큰 소매 겸한 도매상 ..	70
39	“주머니 얇은 서민들 생각해 마음 비우고 책장사 합니다”	72
40	IMF 때문에 붓 꺾은 미술학도가 운영...비싸도 수준있고 깔끔한 책만 다뤄	73
41	‘새 책방 속의 헌책방’ 21년째 생존... 총각사장 올해안 고서박물관 꿈	75
42	두 번의 문화단절기 헌책방이 다리역... 책방 주인은 좋은 책 권하 는 컨설턴트	77
43	‘재고도서 전문’ 시장개척 앞장 12년	79
44	남편 대신 운명처럼 맡은 ‘자매의 삶터’	81
	헌책방 목록	85

2005년

1. 뽕양계 쌓인 세월의 먼지 속 ‘권력장’ ‘한자고음사전’ 눈맞춤

영광서점

저녁 퇴근길에 간혹 들르던 장소를 휴일 낮에 찾아가면 헛갈린다. 밤에 지리를 알리는 발광체들이 낮에는 지형지물 구실을 잃기 때문이다. 또 퇴근길에서 보는 그곳의 위치가 유사 출근길에는 반대방향인 까닭도 있다. 지하철 6호선 망원역에서 가까운 영광서점(주인:박현호, 02-337-6064)은 가끔 방향을 헛갈리게 하는 곳이다.

전형적인 헌책방인 이곳 내부는 전혀 헛갈리거나 복잡하지 않다. 출입구가 둘이지만 오른쪽은 책방 주인용이고 손들은 왼쪽으로 드나든다. 내부는 굳이 품들여 설명할 것도 없는 한 일(-)자. 통로 좌우로 책들이 꽂혔고 거기서 넘친 책들은 책꽂이 앞쪽에 허벅지까지 고였다. 주인을 닮아 책을 숨길 곳도, 책들이 숨을 곳도 없다. 관심의 넓이와 머무는 시간에 따라 책이 눈에 띄거나 그렇지 않거나 할 뿐이다.

책의 드나들은 눈높이 아래에서 빈번하다. 책꽂이가 높고 주인은 키가 썩 크지 않은데 사다리가 없으니 그럴 것이다. 책들은 빛바랜 정도로써 책꽂이에 꽂힌 기간을 말해준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입구에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진한 색이다. 주인석 주변은 시간의 흔적이 없는 재고 새책들이나, 아예 시간이 비집기 힘든 고서 몇권이 있다.

손들의 마음이 급하면 눈길은 눈높이 아래로 가고 널널하면 목젓 스트레칭을 한다. 비라도 뿌리면 스트레칭이 한결 느긋하다.

“이런 책도 나왔구나!” “내가 시덥잖은 일에 몰두하는 동안 그들은 이런 일들을 했구나!” 각각 소리를 내던 세로 제목들은 모자이크가 되었다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커다란 거울로 변한다. 거울 속에는 또다른 ‘나’가 “당신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를 묻는다. 거울 밖의 ‘나’가 불쌍하면 “지난 일주일은 뭘 했는가?”로 질책을 조금 녹여준다.

《권력장》(곽존복 지음, 푸른숲, 1998), 《위대한 장군들은 어떻게 승리했는가》(베빈 알렉산더 지음, 홍익출판사, 2000)가 도드라진다. 전자는 3천년 중국 정치사에서 뽑아낸 통치의 기술. 후자는 마오쩌둥·징기스칸·나폴레옹 등 영웅들이 전쟁에서 이긴 비결을 추적한다. 세상이 한권으로 얻는 기술이나 비결로 살아낼 만큼 녹록한지는 사람마다 다를 터.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알랭 드 보통, 정영목 옮김, 청미래, 2002). 심각한 제목의 이 소설은 청춘남녀가 눈과 배가 맞으



그림 1: 영광서점, 사진 김태형 기자

면서 일어나는 자잘한 일들에 관한 총체적 사유다. 지난 주에는 《한자고음사전》(버나드 칼그렌, 아세아문화사 영인, 1975)이 눈에 띄었다. 책값은 낮은 편이다.

주인은 ‘다른 일’로 바빠 책탑을 쓰러뜨리지 않는 손의 행태에 무관심하다. 책값 치를 때 비로소 눈을 마주칠 수 있다. 눈치보지 않고 책구경하기 마춤하다. 단, 우산 따위를 들고 가지 말 것. 행여 책을 뽑아 보면서 어딘가 었어두었다간 잊어버리기 십상이다.

2. 베스트셀러 · 어린이책 많은편

연남서점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지나치기 쉽다. 몇해 전 태풍에 날아간 간판 자리에 페인트를 찍어 그냥 손으로 서점이름을 썼다. 연남서점(02-302-8407).

덜컹덜컹 미닫이를 열면 작은 종이 딸랑거리고 책 틈으로 주인의 얼굴이 비스듬히 보인다. 사람좋은 표정의 김일균(57)씨의 얼굴에 텔레비전의 형광빛이 어른거린다.

정사각형 사방으로 천장까지 책이 꽂혔고 가운데 정사각 평상 역시 배꼽높이부터 책이 쌓였다. 들어서면서 시계방향으로 어린이책, 시집, 실용서·소설, 학술,



그림 2: 연남서점

불교 · 기독교 서적, 참고서 순으로 꽂혔다. 가운데 평상에는 여성잡지와 미술, 기독교 서적이다.

4-5년 나카마(중간상)를 거쳐 1979년 서대문구 연남동에 과일과 선베 가게를 열었다. 한켠에 헌책을 놓고 장사를 하다가 86년께 책방으로 완전히 업종을 바꿨다. 그리고 89년 이곳 북가좌동으로 자리를 옮겨 16년째다. 책을 거두고 팔며 30여년을 꾸렸다. 한학기 남은 막내의 대학 등록금은 은행융자를 받을 참이다.

“그때가 좋았지요.” 주말이면 준비한 청계천 헌책방 거리. 전공 책을 찾는 대학생과 아이들 책을 사려는 주부들로 붐볐다. 주말이면 목록을 적은 쪽지를 들고 어깨를 부비며 다녀야 했다. 고물상 등을 돌아다니며 책을 모아두면 청계천 사람들이 쓸어갔다. 책을 모으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았고 파는 것 또한 걱정 없었다.

“요즘요?” 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걱정이다. 예전처럼 책을 즐겨 읽고 소중하게 보관했다가 필요없다고 생각될 즈음 헌책방에 넘기는 사람이 거의 없다. 쓰레기에 섞여 버려지고 일쭉고 그나마 한두 권씩 흩어져 수습하기 힘들다. 그는 요즘도 하루에 한 차례 근처 고물상 5-6곳을 돈다. 불이 켜진 채 문이 잠겼으면 책을 구하는 중이라고 보면 된다.

1차 책방이니만큼 많이 풀린 베스트셀러나 어린이책이 많은 편. 책 상태는 대체로 고만고만하다가 괜찮은 책이 들어오기는 느단없다. 때로 강운구 사진집 《우연 또는 필연》이나 학술잡지 《한국학보》가 무심하게 놓여있고, 들춰보지도 않은

듯한 《스칼렛》 원서 소설책이 구석에 숨어 있다.

손님들은 대부분 근처 사람들. 이사갔던 이가 근처에 왔다가 들르면서 아직도 있느냐며 반가워한다고 했다. 책값을 치르고 다음에 가져간다고 맡겨놓은 책뭉치도 여럿이다. 구제금융 무렵 맡겨두고 지방으로 내려간 사람이 아직 연락이 없으면서 형편이 아직 안 편 것 같다고 말했다.

어느 날 젊은이 둘이서 디지털 카메라를 찍고 묻고 하더니 인터넷에 책방을 소개한 모양이라면서, 그 글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위치를 묻는 전화에 “수색역과 증산역 딱 가운데. 증산3교로 불광천을 건너 사거리로 지나면 10여미터쯤”이라고 설명해 주고는 “나는 찾기 쉬운데 남들은 찾기 어려운 모양”이라며 웃었다. 명함 대신 메모지와 볼펜을 넘겨준다. 89년에 500장 찍고는 그만이라면서.

3. 없는책 없는 ‘거리 도서관’

숨어있는 책

헌책방 5년. 서울 신촌에 있는 ‘숨어있는 책’(주인:노동환, 02-333-1041)한테는 길다. 12평 가게에 17평 아랫방(지하)이 추가됐다. 또 책창고를 16평에서 30평으로 옮긴다니 걸보기보다 책이 엄청나게 늘었다. 그만큼 손님이 늘고 찾는 책도 늘 것이다. 주인은 몰밑 오리의 발처럼 쉴 틈이 없다.

“이럴 줄은 몰랐어요. 집사람 얼굴 보는 시간조차 많지 않아요.”

자신의 장서를 내놓으며 헌책방을 꾸린 게 1999년 11월. 주인 노동환씨는 책방일을 재밌어 하면서도 ‘정말 이래도 되나’ 하는 고민에 빠졌다. 조그맣지만 알찬 책사랑방이 되고자 했던 원래의 꿈과 손님들의 어떤 요구에도 응할 수 있는 거리의 도서관이 되고 싶은 욕망이 충돌하고 있다.

손님들은 만족스럽다. 인사동에 ‘통문관’이 있다면 신촌에는 ‘숨어있는 책’이 있다는 것. 사람들은 수년째 고정 출입하고, 근처에서 약속이라도 있으면 안팎시간에 그곳을 들른다. 주인의 공교한 눈으로 뽑아온 책들은 고스란히 손님들에게 넘겨져 그들의 마음을 살찌우고 넘쳐 장서를 풍요롭게 한다.

고전하는 어느 책방들과 달리 책의 출입이 잦고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주인의 부지런함 외에 다른 원인이 있지 않고야 가능하겠는가.

그는 책을 사는 것을 즐긴다. 그 순간만은 자신이 헌책방 순례자였을 때 자신에게 읽혀 마음과 머리의 빈 자리를 채우고자 했던 마음으로 돌아간다. 하여, 자신의 선택이 손님의 손길과 만나는 순간 더없는 희열을 맛본다. 그냥 재미 있겠네 했던 책에 무척 즐거워하는 손님을 만나면 한수 배웠다는 기분이다. 그것으로 결코 채울 수 없는 욕망은 책을 집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렇게 해서 한권 한권 1천여권이다. 처음 책방을 꾸릴 때처럼 결국엔 다시 내을 터이지만.

앞으로 헌책방 시장은 저가의 일반서적과 고가의 절판·희귀본으로 이원화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일부 젊은 책방과 온라인 고서점을 중심으로 그런 경향이 드러나고 있다. ‘숨어있는 책’은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어 고가일 수 있는 책들이 최소한의 이문을 붙이는 선에서 가격이 책정된다. 책을 수집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곳이다. 노씨는 결국 숨어있는 책도 그런 추세에서 예외일 수 없을 거라면서도 자신의 성격으로 미뤄 뒤꽂무니에 붙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새 책 시장이 활성화 되어야지요.” 아직은 책이 팔리는 속도보다 쌓이는 양이 많지만 양에 비해 질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대로 가면 2차책방인 이곳도 머잖아 고갈상태를 피부로 느낄 것이라며 헌책방 주인은 새책시장 걱정이 다. 누가 전직 출판사 편집장 아니랄까 봐.

한 손님이 이틀 전에 보아 두었다던 명·청 역사서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왔다. “그 자리에 없으면 팔린 겁니다.” 그가 빈 손으로 나가고 잠시 뒤에 다른 손님이 그 책들을 그려안고 계산대로 왔다. 주인장은 “밖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파악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다”며 겸연쩍게 웃었다.

4. 유리문 책장안에 귀중본 한 꾸리

우리서점

찾아가기론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에서 가깝고, 어림잡기는 용산 미군기지에 궁둥이를 대고 있다. 우리서점(011-346-1589) 입구 계단은 건물의 나이만큼이나 닳았다.

느린 오후 혼자서 커피를 타던 주인 남순종(65)씨는 동무를 만나 반가운 듯 한잔을 더 탔다.

18평 2만여권의 책이 가득한데 여느 책방하고는 조금 다르다. 반듯한 책꽂이에 분야별로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 잔손이 많이 간 흔적이 역력하다. 인문사회 특히



그림 3: 우리서점

문학쪽 책이 많고 최근에 나온 책들도 꽤 많다.

“원래 출판사에 딸린 서고였는데 7개월 전에 책방으로 바꿨습니다.”

조금 다른 표정이 바로 그런 탓이다. 글벗사. 어린이책과 문학 관련 책 1천여 종을 냈다. 《건국대통령 이승만》(이종구 지음)이 최근작이다. 출판사 명패가 달린 작은 방 컴퓨터는 먼지를 썼고 아들이 업데이트한다는 사이트(gulbutsa.co.kr)는 한산하다. 구제금융 사태가 터지면서 시난고난 출판사는 시들고, 급기야 5-6명 직원을 모두 정리하고 집을 팔아 전세로 옮기며 빚잔치를 했다. 출판사 이름을 유지한채 일감이 들어오면 아르바이트를 써서 책을 낼 따름이다.

책이 좋아서 책동네와 40년 인연. 출판사가 잘 나갈 때는 하루에 책 5권을 낸 적도 있고, 종로 6가 대학천시장에서 신간도매를 하기도 했다.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헌책방을, 오산고교 앞에서 새책방도 해 보았다.

“출판사가 안될 때는 책방을 겸했지요.”

책을 낼 때 참고자료로 쓰려고 모아둔 것과 책동네의 지인들이 가져온 책들이 지금 매장에 나앉은 상품들이다. 출판사로는 돈을 만지기 어려웠는데, 요즘은 하루매상 7만-8만원을 올린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인 친구하고 점심은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놀아도 이곳에서 놀고 일을 해도 이곳에서 일을 한다는 남씨는 차라리 서점이 속 편하단다. 매장 분량만큼 쌓였다는 집안의 책도 이 참에 끌어내와 쓸쓸한 책

방으로 만들 계획이다. 특별히 보여주는, 유리문 달린 책장에 귀중본들이 꽂혔다. 값만 맞으면 판다는 샘플들이다. 《문학개론》(김기림, 문우인서관, 1946), 《시집 호롱》(서창수, 청구출판사, 1951), 《푸른 별》(김용호, 남광출판사, 1952), 《조선 문자 급 어학사》(김윤경, 조선기념도서출판관, 1938) 등 꾸리꾸리하다.

경기에 따라 떠올랐다 잠겼다를 거듭해온 책방. 남씨는 다시 책을 활발히 널 꿈을 꾸다. 문예 계간지 《문예와 비평》를 11년째 거르지않고 내 온 것도 그런 연유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꿈으로 그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구제 금융의 그들은 그만큼 깊고, 출판동네의 세월은 빨라 늙은 그가 끼어들 걸을 주지 않는다.

5. 권력암투 다룬 소설 '명주기봉'이?

혜성서점

종로구 혜화동에 자리잡은 혜성서점(02-741-0143). 문고판, 프랑스어 어린이 책을 지나면 근자에 나온 헌책들이 꽂혔거나 쌓여 있다. 책들이 깔깔하다. ㄱ자 통로의 코너에 주인이 버티고 앉아 더이상 접근을 막는다. 들어올 때 한차례 눈길을 주었을 뿐 입던 책으로 다시 옮겨간 주인의 시선은 완강하다. '도대체 읽는 책이 뭐기에.'

주인의 다리를 밀어내고 안쪽으로 들어가 낡은 책들을 보다가 문득 통로 끝 천장에 가까운 책꽂이에 꽂힌 시커먼 책이 눈에 들어왔다. 《명주기봉》 하, 《쌍천기봉》 중. 영? 문화재관리국 장서각 귀중본 총서로 1978년, 79년에 200부 한정 영인한 궁체 한글본이다. 송·명대를 배경으로 귀족들의 남녀관계, 권력 암투를 다룬 '가문소설'. 궁중 또는 사대부 여인들이 주로 읽은 것으로 추정된다. 비슷한 《명주보월빙》, 《윤하정삼문취록》과 《완월희맹연》은 활자본으로 풀어 펴낸 바 있으나 《명주기봉》과 《쌍천기봉》은 몇 차례 영인되었을 뿐이다. 일반인들한테는 부담스럽고 연구자가 한정돼 굳이 풀어쓸 필요 없는 축이다.

책 구경이 끝나서야 비로소 주인 전순인(67)씨와 눈이 마주쳤다. 혜화동 안국동 충신동 명륜동 성북동 등이 혜성서점의 관할구역. 유서깊은 동네들인데다 작가 문인이 많이 살아 쓸쓸한 책들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문집 같은 한적은 더이상 안 나와. 저거? 다 족보야. 고서점은 이제 끝이야. 고서를 보는 사람도 없고 수집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



그림 4: 혜성서점

1969년 중간상으로 책을 만지기 시작한 전씨는 79년에 10여년의 눈썰미로 목 좋은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동안 쓸쓸한 책들이 많이 나와 그 덕에 ‘먹고 살고 아이들을 가르쳤다’. 80년대 재개발 붐이 일면서 사람들은 새 집에 어울리지 않는 책들을 털어내고, 강남으로 이사가는 사람들 역시 그 책들을 버렸다. 책방으로서는 노다지였던 셈. 그러나 엄청나게 쏟아지던 고서는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푹 끊겼다. 요즘은 고서보다는 헌책을 더 많이 취급하게 되었다.

고서랄 것도 없는 《명주기봉》과 《쌍천기봉》은 영광의 그림자인 셈이다.

“책장사 35년인데 아직도 보지 못한 책들이 나와.” 40-50년대 책이 종류와 내용에서 의외로 풍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책방 주인한테 그럴 정도면 내공이 얇은 손님한테야 더 그렇지 않겠는가. 벽 한바닥 가득 꽂힌 누렇게 바랜 책들이 새삼스럽다.

“요즘 학생들 책 안 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일체 안 와.” ‘문화의 거리’라는 대학로가 멀지 않고 학생들로 버글거리는 성균관대가 코 닿을 거리. 전씨의 말에는 회한과 약간의 분노가 어렸다. 그래도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서점이 있어 줘서 고맙다고 한다면 자위다. 그가 보던 책은 《藝(예)에 살다》(김충현, 범우사). 팔라고 하니, 보는 책을 왜 그러느냐며 거절했다.



그림 5: 고래서점

6. 10년앞 보며 온라인으로 걸음마

고래서점

고래서점은 세 군데다. 용산구 보광동 오산학교 부근, 숙대입구역(지하철 4호선) 근처, 그리고 인터넷 온라인. 이 가운데 보광동 것이 남순복(62)씨가 시작한 원조. 숙대입구역은 동생인 순운(52)씨의 새책방, 온라인은 아들이 4년 전 시작한 헌책방이다.

원조 보광동 고래서점(02-793-0039)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 역에서 한강 쪽으로 버스 두 정거장 거리, 0015번 종점 근처다. ‘그곳에서 좋은 책을 구했다’, ‘책값이 헐하다’는 입소문이 났다. 출판사를 했던 주인 남씨는 청계천을 거쳐 27년 전에 이곳에 정착했다.

주변에 책방이 없고 미국 이민자들의 책이 많이 나와 문전성시였다. 특히 값이 싸 학기 초면 학생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하지만 요즘은 한산하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새책을 선호하고 더럽다면서 아이한테 헌책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축도 있다. “사람들이 올챙이적 생각을 못 해요.” 어찌면 반대로 그가 옛 생각만 하는지도 모른다. 동아대백과사전이 천덕꾸러기로 쌓인 현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다.

책이 안 들어오는 걸까. 온라인 아들 책방으로 옮겨 갔을까. 소설과 수필 등

가벼운 입을 거리 반, 중고교 참고서 반이다. “책이 나올 때 왕창 나오고 팔리기도 금세지요.” 그런 흔적인 듯 표지가 떨어져나간 딱지본과 40년대에 나온 대학교재가 숨어 있다. 크리스티앙 자크의 《람세스》 등 원서들과 김영승의 시집 《취객의 꿈》 등 시집이 많다.

남씨는 사회봉사라고 생각하면서 책장사를 했다면서 돈에 연연했다면 책방을 오래 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다. 요즘은 조금 후회된단다. 뭘 바라고 한 것은 아니어도 전세살이에다 몸이 망가져 마음조차 불편하다.

그러나 아들들이 정직하게 잘 자라줘 ‘가난한’ 아버지의 마음은 부자다. 만이가 연극배우 동진(34)씨, 둘째가 온라인으로 가업을 이은 동일(33)씨다.

동일씨는 제약회사의 일본지사에서 일하면서 그곳 헌책방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사회봉사라는 명분도 있고 사업성도 있다는 것이 그가 내린 결론이다. 그의 인터넷 책방(gorebook.co.kr)은 아버지의 상호를 땀고 전화 연락처도 아버지 거다. 자신은 의정부에 따로 40평 창고를 두고 아르바이트생을 써 하루 수백권의 책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 그전 수입에 못 미쳐도 책 가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즐겁다. 그래서 책이 있다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간다.

“아직 걸음마예요. 10년 앞을 보면서 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1년 뒤엔 창고를 넓혀야 한다. 국내에서 자리잡고 나면 중국과 일본에도 지점을 내고 싶다.

“아무리 인터넷을 통한 정보가 많아도 책을 통한 깊은 전문지식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는 21세기에도 책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고엽제전우회 군복을 매장 한쪽에 걸어둔 아버지의 눈길이 착 가라앉은 반면, 책과 책방에 관해 얘기하는 아들의 전화 목소리는 무척 상기돼 있었다.

7. 천장엔 50년대 동화책이 ‘둥둥’

작은우리

연신내 지하철 역과 기자촌 중간쯤 연신초등학교 옆에 자리잡은 ‘작은우리’(02-383-6263). 이름처럼 아기자기한 동네책방이다. 엄마손 아이들, 재잘재잘 중고생, 퇴근길 한 정거장 앞뒤에서 내린 직장인들이 손님이다.

ㄷ자처럼 생긴 통로. 첫책 벽에는 시, 소설류가 꽂혔고 넘친 책들이 바닥에 쌓였다. 《서재 결혼시키기》나 《돈 주앙》 같은 책이 도드라진다. 금방 들어온 듯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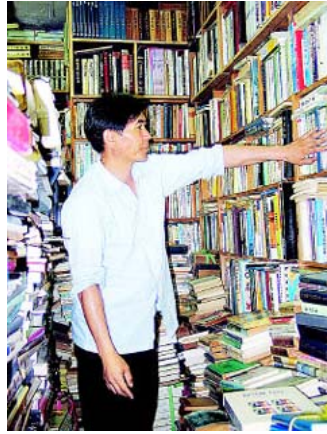


그림 6: 작은우리

창비영인본 세트는 끈도 안 풀었다. 주인 이홍복(49)씨가 앉은 뒤쪽은 사전 연감류 참고서류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날 정도로 좁은 끝획 통로에 이르면 갑자기 시간이 정지돼 흑백시대가 된 듯하다. 쌓인 책들의 무게만큼이나 시간이 첩첩이다. 오래 머물면 책이 무너지거나 시간의 무게에 스스로 무너지거나다. 신학서적, 일어소설, 《세종장헌대왕실록》 낙질, 《고전복음사휘집림》 1-8(정문서국) 등이 눈에 띈다.

백미는 천장. 빛바랜 ‘국민학교’ 공책, 《황야의 무법자》, 《동백아가씨》, 《로보트 태권V》 등 옛 엘피판이 붙어있다. 뿐인가. 《톨스토이 동화-사람은 무엇으로 사냐》, 《소공녀 소공자》, 《장다리꽃 필 때》, 《5월의 노래》 등 50년대 동화책들이 둥둥 떠있다. 일종의 비품이다. ‘팔라’고 말한다면 ‘나는 여기 처음 왔소’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주인 이씨는 가게를 그만둘 때 단골한테 하나씩 선물할 거라고 한다.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근처 기자촌은 작가, 예술인들이 많이 살고, 불광동은 오래된 집이 비교적 많아 그런대로 ‘물건’이 나왔다. 예쁘게 장정한 권환의 《윤리》는 인자 자국이 까끌거릴 정도로 상태가 좋았다. 설정식의 《종》 역시 앞으로 다시 만날 기회가 없을 터이다. 얼마 전 국악, 한적 영인본 등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뉴타운 개발이 되면서 옛물건 장사들이 목을 지키기도 했다.

주인 이씨는 목감기라면서 《건강도인술》(정신세계사)을 보고 있었다. 더위에 과로 탓일 거다. 폐지상 순례는 물론 ‘헌책 삽니다’ 전단지를 붙이고, 아파트 .

빌라촌을 돌며 경비들에게 명함과 음료수를 건네는 것도 일이다. 전화가 오면 가게를 아내에게 맡기고 오토바이로 뺑 다녀온다. 부부는 부지런하기로 호가 났다. 찬바람이 불면 가게 앞에서는 어김없이 봉어빵을 굽고 어묵국물을 끓인다. 줄어드는 헌책방 수입에 쏠쏠한 부업이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대학 4학년이다. 부부는 일년 한차례 전국일주 꿈이 있어 즐겁다.

지난 겨울에는 책을 한 트럭 버렸다. 책을 어떻게 파느냐보다 어떻게 버리고 정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책은 또 잃어버린 금반지 같아서 무더기에 휩싸이면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눈이 쌓일 때 책을 많이 읽어두란다. 늙어 느린 시간에 묻히면 스스로를 찾을 수 없다는 것. 그렇게 말하는 이씨는 정작 책임기보다 남들에게 입힐 책 구하러 다니느라 얼굴이 그을었다.

8. 주인만 만난다면 값이야 ‘그까이꺼’

청구 헌책백화점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선풍기가 회회 돌아도 덩다. 청구 헌책백화점(02-2252-3554) 주인 황영섭(62)씨는 ‘어깨 난닝구’ 차림이다. 비라도 한줄금 하려는지 찌는 듯한 무더위. 물 갈아줄 때가 지난 어항 속 물고기처럼 주인은 혁혁거렸다. 주인 또래의 노파가 언제부터였는지 징징대며 녀두리를 늘어놓고 있었다. 주인은 웅웅 대꾸하며 나른한 오후시간을 죽였다.

책들도 분위기를 타는가. 징징 웅웅, 바닥의 것들은 넘어지고 자빠져 있고 책꽂이의 것들은 들쭉날쭉 뺨뺨뺨 도대체 ‘정신이 다’. 늘 그러한데 오늘 따라 유난스런 것은 아마도 더위 탓일 거다. 주인을 닮아서 체면이고 격식이고 없다. 어린이책, 참고서, 소설 그 정도 대충 영역을 정해 놓고 툭툭 던져진 듯한 게 여축없이 회색 툰이다. 그러나 머무는 동안 찾아온 손님이 책을 물으면 있다, 없다, 황씨의 답은 확실하다. 값은 그까이꺼 대-충 얼마다. 행여 돈이 모자라도 그까이꺼 대-충 까 준다. 세 내기가 귀찮아 건물을 사버린 주인은 손님 눈치도, 책 눈치도 안본다. 그까이꺼 대충 팔리면 그만이고 안 팔리면 버린다.

혹자는 이곳에는 쓸 만한 책이 없다고 한다. 책방이 아니라 고물상 같다는 혹평도 있다. 얼핏 보면 그럴만도 하다. 하지만 겉볼안. 주인은 부지런히 책을 거두어 들고 홈페이지를 열어 책을 올린다. 굳이 표를 내지 않거니와 매장 뒤편 창고에 한가득 갈무리해놓은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주인을 채근해 둘러본 적이 있



그림 7: 청구 헌책백화점

는 그곳에는 썩 값나가는 것은 없지만 책주인을 찾기 어렵잖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눈길 맞는대로 손에 잡히는대로 노후대비 저축하는 심정으로 쟁여둔 것이리라. 더 늙어 힘이 없어졌을 때 그 책들이 든든한 ‘뺨’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눈치다.

그렇다고 매장이 아주 맹탕이나 하면 그렇지는 않다. 여유를 두고 느긋하게 훑어보면 까탈스런 눈에도 의외의 책이 ‘여기요’한다. 《화당집》(1720)을 한정 영인한 《화당 신선생 문집》(1979). 성균관 대사성을 지낸 신민일(1576-1650)의 글 모음이다. 임병양란을 살아 어수선한 시대의 편린이 시구에 남았다. 원본 일실을 우려한 문중에서 비매품으로 만들었지 싶다. 서울정도 600년기념 설화집 《옛날옛적 서울에》(최래옥 편, 서울학연구소 1994), 《벽》 1, 2(허영만, 팀매니아, 1995), 《고어사전》(남광우 편, 교학사, 1997) 등등. 툭툭 던져둔 것들 중에 섞인 것들이다. 값은 ‘무척’ 높다. 책은 주인을 만나야 한다는 게 황씨의 지론이다. 해서 ‘필요한 만큼’만 받는다.

넋두리하던 노파가 나가고 40대 주부가 초등학교 교과서를 찾았다. 불러주는 대로 책을 뽑아주고 값을 셈한 주인은 다른 교과목 책 2권을 얹어주며 대구 가져가라고 했다.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면서.

지하철 청구역에서 내리면 조금 가깝고 약수역에서 내리면 조금 멀다.



그림 8: 대양서점

9. 엘피판, 영화포스터... 책아닌 것들의 유혹

대양서점

책방의 책은 소리치지 않는다. 책은 그냥 수많은 책들 가운데 시골색시처럼 잠자코 존재한다. 책은 다가가 손을 잡아줄 때 비로소 책이 된다.

대양서점(02-394-4853)에는 책 아닌 것들이 시끄럽다. 엘피판, 꼴단지, 영화 포스터(고교알개)는 봐줄 만하다. 풍년초 담배, 족제비, 고라니 박제에 이르면 사정이 달라진다. 군데군데 덧처럼 놓인 그것들은 눈 옆자위에 도사리고 있다가 조금 시선이 비껴나면 덮석 잡아끈다.

“어릴 적 자전거 뒷자리에 거꾸로 앉아 멀어져가는 풍경을 바라보던 기억이 생생해요.”

주인은 ‘거꾸로 사는 재미’에 푹 빠진 젊은이 정태영(32)씨. 젊지 않는 그를 젊다고 함은 헌책방 주인은 으레 중늙은이 이상인 까닭이다. 5년 전 큰길 가에 매장을 가진 아버지의 권유로 한 블럭 뒤에서 책방을 시작한 정씨의 가게이름은 공식적으로 ‘대양서점 2매장’.

하지만 이제 ‘대양서점’ 하면 아들의 매장을 떠올리는 사람이 더 많다. 아들 손님은 아들 손님, 아버지 손님도 이젠 아들 손님. 아들이 구한 책은 아들 것, 아버지가 구해들인 책도 대부분 아들 것. 손님도 책도 아들에게 넘긴 아버지는 취미,

시, 소설, 수필, 신학 관련 책들만 들여놓은 채 성경을 읽고 신학강좌 테이프를 듣는 게 일과다.

젊은 아들은 옛날 생각만 하면서 팔리지 않을 책들을 집어온다고 아버지를 타박하고, 아버지가 못 팔 책도 자기는 팔 수 있다고 한 자랑이다. 아버지도 그것을 인정하여 웬만한 것은 아들한테 넘긴다. 아들은 책뿐 아니라 각종 팸플릿, 옛 사진, 때로는 글씨와 그림까지 관심사가 넓어졌다. 그가 앉은 책상 뒤쪽에 〈한국문예사전〉〈한국영화발달사〉〈한국신문사연구〉〈잡지연구〉 등 각종 ‘공구서’가 꽂혔다.

매장의 책들은 그 종류나 꽃힘새가 주인처럼 매초롭하다. 닦고 펴고 붙이고, 낡은 책도 그의 손을 거치면 새책으로 거듭난다. 가끔은 새 책도 들어와 손님들 주머니를 툭툭 털게 만든다. 책의 드나듦은 빈번해서 책탐이 많은 어떤 이는 책만큼이나 자주 드나든다. 정씨는 주요한 것들은 홈페이지(daeyang_book.hihome.com)에 올려 선착순으로 돌아가게끔 배려한다. 그 많던 원서도 좋아들었다. 볼 만한 옛 책은 아쉬워하는 손님을 위해 표지와 목차 정도를 자신의 블로그에 남겨두고 있다.

“5년 동안 사람들을 얻었고 저 개인 삶을 잃었어요.” 기자가 찾아간 일요일에도 모처럼 문을 닫고 카르티에 브레송 사진전을 가려다 약속이 취소된 탓에 책방을 열었다.

정씨는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 책을 쳐다보는 시선, 사간 책으로 손님을 기억한다. 지문처럼 분명하게 구별된단다. 특히 45도로 올려다보는 무용가 최승희의 프로필을 좋아한다니 총각 주인의 시선을 잡아 처자는 위쪽 책꽂이 책을 주로 쳐다볼 것.

10. 제비도 쉬었다 가는 고즈넉한 한옥 풍경

대오서점

책방은 땅에 붙박혀 있다. 그런데 쫓아가서야 붙잡을 수 있는 책방도 있다. 종로구 누하동 대오서점(02-735-1349). 한옥 뼈격대문을 개조한 유리 여닫이문 위에 작고 초라한 간판은 자칫 지나치기 십상이다.

문을 열면 빠리리. ‘예’ 하는 대답이 들리면 주인이 있는 거고 반응이 없으면 외출 중이다. 주인 권오남(75) 할머니는 ‘가져갈 것도 없고 잃어버릴 것도 없어’ 잠그지 않는다.



그림 9: 대오서점

두 사람이 들어서면 부비고 서야 할만큼 좁은 대문간 좌우, 야트막한 천장까지 책꽂이를 달았다. 넘친 책들은 양쪽 바닥에 조-금 쌓였다. 소설, 수필, 요리책, 만화책들. 한발짝 성큼 내디디면 문지방 너머 마당이다. 기억자 한옥. 문간 쪽과 건넌방 처마 밑에 책꽂이를 달아뒀다. 안채 처마 밑 책꽂이는 천상 제비집이다. 책들은 대부분 철 지난 교과서와 참고서 또는 바랜 만화책. 비닐로 비가림 한 책더미에 낡은 사다리 두 개가 기대어 있다. 부엌 조리대 맞은 편, 기름이 뿔까 비닐로 덮은 책더미 역시 찾지 않을 참고서다.

벽에 기댄 책들을 걷어내면 평범한 일반 가정집, 아주 사적인 공간. 무척 조심스럽다. 마당가 수도 옆에 빨랫돌. 장독대에 항아리 여너무 개. 스티로폼 흙상자에 주렁주렁 고추가 약이 올랐다. 화강암으로 마감한 얇은 봉당에 올라서면 자르르 판마루. 아들 또는 손주일 법한 사진이 문틀 위쪽에 걸렸다. 서까래와 대들보가 그대로 드러난 천장. 깨끗한 회칠이 주인할머니를 닮았다.

“버리지 않고 그냥 장식품으로 두는 거야. 책이 들지도 않고 나지도 않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던 해’에 무릎관절 수술을 한 뒤 힘쓰는 일을 접었다. 고물상을 돌아다닐 수도 책을 나를 수도 없다. 이웃에서 책을 가져오거나, 참고서를 찾는 학생들이 차츰 찾아들어 이제는 거의 없다.

경기도 원당이 고향인 권 할머니가 책을 가까이한 것은 52년 전인 1953년, 군에서 갓 제대한 조대식 총각한테 시집오면서부터. 총각은 책방을 차려 색시와 자신의

이름 한자씩을 떼어 책방 이름을 지었다. 알콩달콩 한해 걸러 여섯남매를 낳아 길렀다. 그렇게 45년. 7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전문서적쪽은 푹 떼어 팔고 문간방의 것만 남겨 8년째 혼자 꾸려왔다. 어깨 너머로 배워 그럭저럭 이어왔으나 이제는 가갯방에 이어 시어머니(작년 2월 작고)가 쓰던 방도 세를 주어 그 세로써 생활한다. 작년에 막내아들이 설악산, 제주도 구경을 시켜줘 평생 처음 집밖 나들이를 했다. 단양에서는 ‘시루에서 콩나물 올라오듯 올라오는’ 물안개도 구경했다. 요즘은 게이트볼에 재미를 붙여 해가 설핏하면 사직공원으로 간다.

1912년에 출간된 《사도행전 주석》이 ‘전통 헌책방’의 자취 속에 화석처럼 남아 있었다. 주인 할머니는 출간되지 않은 책이거니, 잠자리 날개같은 기억이 저만치 않아져 간다.

11. 온라인 · 오프라인 책공간 절반씩 동거

대방 헌책음반 사고팔고

‘대방 헌책음반 사고팔고’(02-824-8033)는 자기네가 무엇을 한다는 내용 자체가 이름이고 간판이다. 인터넷주소(oldbook8949.co.kr) 역시 그렇다. 그런 만큼 여주인 조화영(42)씨의 말은 직설적이다.

“책방 하려는 분 있으면 찾아줘요. 등록된 책이 2만5천권, 모두해서 3만권 있어요. 권리금 3천만원, 책값 별도고요.” 5년 전의 기억으로 반갑게 맞아놓고 대뜸하는 말이다. “근데, 헌책방 책값은 주인 맘대로지요.” 덧붙까지 감안하면 힘들다는 하소연인 셈.

강남중 정문 앞에 자리한 책방은 40평. 오른쪽 반은 도서관처럼 분야별로 정리된 온라인용, 왼쪽 반은 헌책방답게 대충 정리한 오프라인용이다. 주인은 오프라인 쪽에 컴퓨터를 두고 온라인 손님을 응대하다가 오프라인 손님이 오면 자판대화에서 입말대화로 모드를 전환했다.

남편이 ‘기름값도 못 건지면서’ 거뒀은 책을 밤을 도와 분류하고, 낮동안 틈틈이 표지를 스캔하여 서지사항과 함께 입력한다.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쉴 틈이 없다. 책을 손질해 꽂아두고 팔 즈음에 서지와 가격을 매기면 그만이던 시절이 그립다.

“인터넷이 사람을 각박하게 만들어요. 헌책방에 책을 파는 사람들이 리스트상의 값에 견줘 쳐달라고 해요. 책이 달리니 어쩔 수 없이 그런 값에 사게 돼요.



그림 10: 대방 헌책음반 사고팔고

당연히 값이 비싸지죠. 전에는 헌책방 인심이 후했는데….”

서지가 사이트에 올라가는 즉시 책들은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한다. 주목할 만한 책은 첫페이지에 표나게 올린다.

“온라인 손님은 굉장히 민감해요. 좋은 책 올리면요-, 어떻게 알고 오는지 귀신 같아요.”

온라인은 달리는 자전거 같아서 계-속 책을 올려야 한다. 그러니 일에 치어산다. 책은 내용과 무관하게 제목과 서지, 그리고 무게로만 존재한다.

온라인 단골은 그들이 사는 책의 종류와 주문·배송 과정에서 직업과 성품을 짐작한다. 마침 주문이 들어온 책들을 포장하면서 “학교에 계시는 분 같다”고 말했다.

“주문하고는 몇시간마다 전화를 하는 분도 있고요. 책을 받아보고는 생각과 다르다면서 물러달라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원칙. 주문한 것과 다른 책을 보냈거나 책 상태를 설명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책임이 책방에 있는 경우 외에는 반품이나 환불은 없다.

리스트에 오른 책을 찾지 못해 낭패인 때도 잦다. 온라인쪽 공간을 마냥 닫아둘 수는 없어 책손님한테 공개하면서 책을 보고 제 자리에 두라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주문한 책이 없잖아요? 그러면 화를 내는 분들이 많아요. 할 수 없죠 뭐. 사과

하는 수밖에. 배송하면서 주문서에 사과메모와 더운 돈을 되돌려 보내요.” 큰 박스 귀퉁이를 적당히 갈라 척척 굽힌 뒤 테이핑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랑 소리에 깜짝 놀라 보니 가로로 쌓아둔 고서 여러 권이 전축 위에 떨어지는 소리였다. “예고, 우리집 재산 다 넘어가네.” 잠시 기자가 뒤적거리며 《일대의 유업》(염상섭, 을유문화사, 1960), 《비정의 곡》(정비석, 삼중당, 1973) 등을 구경한 뒤끝이었다.

12. 비닐봉지에 해방 직후 시집 · 소설 한가득

신촌헌책방

신촌헌책방(02-3141-5843)은 책이 많다. 북아현동 추계예술대 앞에서 신촌으로 옮겨올 때 1t 트럭 열네 대 분량이었다. 지금은 더 늘어 책방인지 창고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100권이 들어오면 20-30권이 팔린다는 주인 오응(64)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곳은 책방으로 시작해 창고로 변하는 중이다.

30평 넓이의 이곳은 사방벽과 책꽂이에서 넘쳐난 책들이 책꽂이 위에, 바닥에 마구 쌓여있다. 최소한의 손길만 주기로 한 것인가, 책의 쌓임도 되는대로다.

이 책방은 신촌 버스정류장에서 동교동 쪽으로 10여m쯤에 난 골목으로 꺾어들면 바로다. 그러나 젊고 싱싱한 사람들이 북적이는 신촌로터리를 지나온 자한테는 진득하니 책등에 시선을 주기가 힘들다. 첨단 신상품의 집적장인 백화점을 거쳐왔다면 더욱 그럴 터이다.

백화점과 책방의 낙하공간에 존재하는 버스정류장은 책으로 향한 발길을 방해한다. 정류장은 이동의 시작점, 그 어름에서 볼 일이 끝난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시선을 주어 자신을 태워갈 버스를 기다리는 곳이다. 어디선가 다가올, 혹은 막 떠나가려는 기득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무리진 사람들의 욕심덩어리를 헤쳐 지난다는 것이 영 어색하다.

상품의 현란함에 현혹된 눈은 이미 충분히 피로하여 2층 높이의 헌책방 간판에 시선을 주지 못한다. 거기다가 큰 길과 가까운 탓에 책방이 거리를 등지고 있음이 두드러진다. 그래서일 거다.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이 마치 흥신소나 전당포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계단을 사이로 책방과 마주보는 복덕방이 낮설고, 그 낮선은 책방에서 다시 한번 뒤집히면서 증폭된다.



그림 11: 신촌헌책방

주인 오씨는 하품을 뽀뽀하고 있었고, 젊은 동업자 김창수(48)씨는 넓은 창턱에 누워 있었다. 실내등 스위치를 올리자 어둠 속의 책들이 갑자기 소리쳤다. 그것은 아우성이었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그것은 소리없는 비명으로 바뀌었다. 그 와중에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신화》(가나출판사) 낱권, 오래된 《가면극》(이두현, 한국가면극연구회)이 눈에 들어왔을 뿐이다.

소중한 책을 보여달라자 비로소 주인은 불룩한 비닐봉지를 내왔다. 그 안에는 해방 직후에 나온 시집과 소설(《청록집》《나비와 바다》《포도》《목화씨 뿌릴 때》)과 잡지 창간호(《민주조선》《조선민중》《괴기》)가 들어 있었다. 100만원, 70만원, 50만원, 20만원... 가격을 말하는 오씨의 표정은 점점 부풀었다. 채규엽의 에스피 음반 《순풍에 돛달고》《권농가》도 있다면서 목록을 보여주었으나 가격은 굳이 말하지 않았다. “집에는 이보다 더 쎈 것 3천권쯤 있는데 팔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결코 닿을 수 없는 가격 너머의 책 구경은 복이라기보다 기이함에 가까웠다.

주인은 무더위에 힘겨운 땀을 흘렸고 책상에는 《된장의 달인들》(지오복)이 펼쳐진 채 옆어져 있었다.



그림 12: 문화서점

13. 손님과 술마시다 조르면 그냥 넘겼지요

문화서점

문화서점(02-374-3383). 서대문구 남가좌동 197-13. 주인 양원석(1951년생).

헌책방은 정거장이라 생각해요. 책은 입자한테 가야한다는 게 지론이죠. 보다 시피 시나 소설 같은 단행본이 대부분이고, 학술 관련 서적도 대부분 개론서들이죠. 좋은 책은 바로바로 나가고 그렇지 않은 것들만 남았기 때문이지요. 30년 되풀이된 들고남이 좁은 공간에 고였으니 세월의 기울기가 더 뚜렷하지요.

좋은 책을 집에 가져다 두었느냐고요? 아녜요. 그럴 만한 책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런 욕심도 없어요. 물론 젊었을 때는 달랐죠. 집으로 찾아온 손님들과 술을 마시다가 손님이 조르면 그냥 넘기곤 했어요. 한번은 신석정 시인 사촌 집에서 엽서 100여장이 나왔는데, 문인들끼리 교류한 것들이더라구요. 두루마리 편지도 있고 원고들도 있었어요. 황순구 교수라고 알죠? 그 양반이 그걸 알고는 사흘 내리 찾아와서 달라고 조르더군요. 그래서 넘기고 말았지요. 이효석의 엽서 한장은 기념으로 두고보려 했는데 그것마저 다 쓸어가버려 지금도 섭섭해요.

하동호 선생 있죠? 그 분은 성산동 살 때 자주 왔는데 눈이 안 보이면서도 책을 샀어요. 나더러 서문과 뒷장 서지사항을 읽어달라고 해서 살지말지를 결정했어요. 책값을 한번도 깎지 않았지요. 그리고 같은 책은 아무리 귀한 것이어도 두 권을 사

지 않았어요. 그러면 장사꾼이 된다는 거죠. 물론 상태가 좋은 것과 바꾸는 경우는 있었지만….

총각 때 연세대 앞에서 ‘구루마’ 장사를 했어요. 밤 10시에 도서관에서 나오는 학생들을 상대로 책 외상을 봤지요. 다음 날 대부분 책값을 가져왔어요. 장부는 따로 없었구요. 그러다 74년에 여기에 자리잡았어요. 76년에 결혼해서 77년, 79년 아들 둘을 낳았어요. 큰 애가 문창과를 나와 출판사에 취직했고 둘째는 1학기를 남겨두었으니 헌책방해서 아이들을 키운 셈이죠. 전에는 아내와 아들이 도와줘 연희동 연남동 수색까지 책을 거뒀는데 요즘은 혼자서 하기 때문에 오전에 오토바이로 근처 고물상을 돌 뿐이에요. 12시께 문을 열어 밤 10시까지 해요.

근래에는 인터넷 책거래가 늘고 나오는 양도 줄어 그전만은 못해요. 특히 아이엠에프가 큰 원인이예요. 그때 책을 덜 사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헌책방이 책가뭄이죠. 그런데다 황학동 사람들이 고물상에서 싹 쓸어가요. 책, 옷, 신발 할 것 없이 조금 이상하다 싶은 것은 다 쓸어가요. 심지어 고물행상들한테까지 명함을 돌려요. 그러니 번두리 헌책방이 다 죽죠.

헌책방 한 것 후회 안 해요. 헌책방 안 했으면 좋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어요. 다만 앞으로가 문제죠 뭐. 더위가 끝나면 살기 위한 몸부림을 한번 쳐볼랍니다. 그러다 안되면 접어야죠. 옛날 공씨책방 하던 공진석씨가 체계적으로 참 잘 했어요. 그만치는 못해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 양반 술 참 좋아했어요. 4홉들이 소주에 라면탕 안주 놓고 함께 술먹는 기억이 나요. 혹시 기자 양반도 술 좋아하슈?

14. 시장 오가는 사람만큼 책 드나들고 분주

골목책방

독립문 골목책방은 영천시장에 있다. 시장이라기보다는 시장 입구에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장통 골목에 있다. 골목의 좌우에 사람키 이상으로 책을 벌여놓고 있다. 물론 다른 점포처럼 별도의 공간을 갖고 있지만, 그곳은 차라리 창고라고 하는 편이 옳다.

이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잦다. 저녁 찬거리를 사러 온 주부도, 막걸리로 킁킁해진 목을 축이려는 일꾼도 일단은 이 골목을 지나야 한다. 책들은 그들을 향해 손짓한다. 그것은 암호와도 같아서 아는 사람한테만 은근하다. 발걸음을 늦춰 잠



그림 13: 골목책방

시 머물면 책들은 비로소 말을 걸어온다. 그렇게 행인은 책방 손님이 된다. 손님은 때로 고개를 숙이고 때로 허리를 굽혀 책들과 눈맞춤한다. 골목은 한 일자, 여느 책방처럼 꼬불꼬불 복잡한 동선이 없다. 그래서 손님과 책들의 대화는 일목요연하다. 숙이고 굽히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모습이 모시적삼처럼 흰하다.

주인은 ‘창고’에 책상과 의자를 두고서도 손님들의 동태를 다 안다. 골목을 들머나는 사람들이 행인인가 손님인가를 주목하고, 손님과 책들과의 대화를 지켜본다. 무슨 책을 어느 어름에 두었는지 아는 주인은 굳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손님의 위치로써 무슨 대화인가를 알아챌 수 있다. 골목선과 황씨의 시선이 마주치는 지점에 세워진 거울이 그 비결이다. 책과의 대화를 끝낸 손님이 책을 손에 들고 대화상대를 주인으로 바꾸려 할 즈음이 황씨가 존재를 드러내는 시점이다.

위에는 선풍기, 발치에는 텔레비전. 중무장한 채 책상에 앉아있던 그는 사진을 찍지 말라고 했다. “손님이 사진 한 장 찍겠다는 데 그게 안 되냐.” “보자니 당신은 손님이 아니다.” 신분을 밝힐 짬도 없이 대화는 언성이 높아지고 급기야는 앞 돼지고깃집 주인이 와서 말렸다. 신분을 밝힌 뒤에도 시비는 2시간여 계속되었다. 신분을 밝히고 협조를 구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게 주인의 주장이고 거절부터 하고 사람 봐가며 찍게 하려던 거냐는 게 기자의 항변이었다. 그는 시비 틈틈이 이러면 안되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책장사 40여년, 참 오래했다, 이제 나이가 들고 한달 100만원 월세도 버겁다, 그만두려고 내놔다, 미국에 사는 딸네한테 가

서 살려고 한다 등등. 황자 정자 기자. 예순 다섯살. 연락처는 거울에 매직으로 쓴 손전화 번호를 가리켰다. 유선전화는 313-5066. “당신, 참 희한한 취재기술을 가졌다”면서 “재료를 줬으니 광고가 되게 기사를 써야 한다”면서 취재수첩을 ‘검사’했다. 기사 나면 신문 한장 갖다 달라고 하면서 2시간 정도 응한 값이 그 정도는 되지 않느냐고도 했다. 기사 난 것 봐서 술 한잔을 사든지 책 한권을 주든지 하겠다고.

광고 한마디. ‘골목책방’은 사람 드나들처럼 책 드나들이 잦고 많다. 좋은 책은 먼저 온, 눈썰미 있는 사람이 임자다. 이러한 특성을 아는 사람들은 이곳을 자주 찾는다. 주인의 손마디는 책방 연륜만큼이나 무척 굵다.

15. “해방전후 나온 책 정리되면 구경오세요”

노벨서점

서대문구 노벨서점(02-308-2701)은 외롭다. 응암동 대림시장을 지나 철물점이 하나쯤 있을 법한 자리에 철물점 같은 간판을 달고 있다. 동네시장의 철물점이 어색하지 않듯 헌책방이 하나쯤 있는 것이 자연스러울 터.

문을 열면 금방 숨이 턱에 바칠 정도로 책이 그득하다. 사방벽과 가운데 쌓인 것을 흐뜨리면 책방공간의 반은 고일 터이다. 처음 마주치는 만화책이 그나마 숨통을 틔워준다. 간간한 역사, 국문학 서적이 꽃힌 오른쪽 벽을 돌아 코너 위쪽 《전당서》에 눈을 줄 즈음 안쪽 구석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 책무지 사이에 고인 공기에 숨을 대고 있는 주인 김창렬(69)씨다.

“책과 가까이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하루종일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도서관에서 빌려온 ‘새책’이 헌책 사이에 끼어 4권이나 뒀다. 책방의 책은 독자용이라 건드리지 않는 것일까, 서재의 책은 주인용이라 이미 다 읽은 것일까. 그는 이곳을 책방 겸 서재라고 했고 손님을 독자라고 불렀다.

그는 4년 전 오거리 근처에서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스무 트럭 분량의 책을 파지간에 넘겼다.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갑자기 두 배로 올린 월세를 감당할 길이 없어 넓이를 3분의 1로 줄여 이곳에 다시 등지를 틀었다. 30여년 넘게 해온 일이러니와 ‘독자들의 열화같은 성원’을 저버릴 수 없어 인연의 거점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

세월은 책들의 켜로 드러난다. 300부 한정본 《한국의 고찰자》, 중국 상하이에서 나온 《전당서》처럼 보는 사람이 제한되거나 값비싼 책과 《국문학개론》 《국



그림 14: 노벨서점

어사개설》 등 대학 초년생한테 잠시 필요한 범용서만 남는 것. 그 넓은 30년 간극은 소설책과 참고서 만화책이 채운다. 《뉴욕 삼부작》(폴 오스터, 웅진), 《인간단지》(김정한, 한얼문고)이 언뜻 눈에 띄었다.

주인이 앉은 뒤쪽 작은 공간에는 싱크대와 더불어 꾸리꾸리한 책이 쌓였다. 펼쳐놓아도 보는 사람이 없어서란다. 우선은 보여줄 것이 이것밖에 없다는 듯, 일제 때 나온 격주간 《신학세계》 10여권을 꺼내왔다. 경무국 검열필 도장이 찍힌 이 잡지에는 당시 사진이 한장 꼴로 실렸다.

“몇해 전 마당에 쌓아둔 고서가 비에 젖어 절반이 떡이 되었어요. 겨우 열다섯 상자를 건졌는데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 1944-46년 ‘똥지’로 만든 책이 많다면서 정리되면 한번 구경할 만할 것이라고 했다.

요즘은 책가뭄이다. 죽어가는 책을 살리곤 했던 교사 출신의 중간상들이 사라진 탓이 크다. 젊은 사람들 몇몇이 오토바이로 다니는 틈에 나이든 사람이 끼어들지 못한다. 더구나 자신처럼 혼자서 운영하는 책방은 운신할 수 없어 더 힘들다고 했다.

그는 헌책방이 안 되는 이유로 입시제도를 꼽았다. 문제풀이 위주로 가르쳐 학생과 교사들이 책을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 책방도 책방이지만 나라 앞날이 걱정이라고 했다.



그림 15: 휴서점

16. 책 팔다 째째이 고물도 팔지요

휴서점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4번 출구를 나오면 휴서점(02-884-8454)이 바로다. 그릇, 미싱, 체중계, 테이프, 화분, 테이프 등 책방 앞에 널린 고물이 ‘중고서적’이란 간판보다 오히려 눈길을 끈다. ‘아무거나 1000원’이란 서가위의 책들은 약간 빛이 바랬으나 조금 뒤적이면 입을 만한 것들이 나올 법하다.

큰 길 가 25평의 이곳은 가게의 앞면이 전부 유리라 내부가 무척 밝다. 고서는 거의 없고 ‘헌책’이 대부분이어서 세월이 고인 퀴퀴한 냄새라곤 없다. 분야별로 잘 정리돼 찾기도 쉽다.

두 주에 한번은 들른다는 김용찬(42) 교수(한중대 국문과)는 “눈도장을 찍어둔 책이 다음에 오면 대부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책 다섯 권 값을 치른 뒤 뒤 돌아보 다 그에 책 한 권을 더 집어들었다. 아이 책을 고르던 한 주부는 “책값이 적정하다”면서 “그런 만큼 자주 와야 마음에 드는 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인 김성수(51)씨는 책 손님을 응대하느라 정신이 없다. 그 틈에 액자 값이 얼마나, 촛대가 진짜 낫쇠냐, 야전삽이 퍼지지 않는다는 등등 고물 손님의 시중도 만만치 않다. 그렇지만 귀찮아하는 기색이 없다. 미싱값을 묻는 사람한테는 한번 손을 봐야 한다고 상태를 설명해 주었다. 조금 뼈끔하면 어느새 그는 책꽃이의 책

을 정리했다. 김씨는 “한 이틀 비가 오면서 뜸했던 손님이 몰린 것 같다”며 웃었다. 오후 4시, 안주인과 잠시 교대하는가 싶더니 그는 계산대 안쪽 좁은 공간에서 선 채로 늦은 점심을 들었다. “책을 사러 가야 한다”며 잠깐 틈을 내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라는 그한테 도대체 질문이란 게 한가해 보였다.

고단한 일이 마무리되는 밤 11시를 넘겨 0시40분부터 잠잘 시간을 뺏어 전화로 몇 가지를 귀동냥했다.

고향 선배의 권유로 86년 봉천 6동 뒷골목에서 시작해 한때 세 군데를 운영하다가 구제금융 이후 통폐합해서 이곳으로 이사온 지 10여년. 목이 좋아선지 주인의 인상이 좋아선지 잘 되는 편이다. 고정적으로 책을 대주는 사람도 서넛 있고 단골 손님도 꽤 많다. 특히 서울대학 근처라 학생 손님이 많은 편. 단골 가운데 터키 유학생은 작년 여름방학 때 자신의 고1 딸을 데려가 17일 동안 터키 구경을 시켜줄 정도로 친해졌다. 애타게 구하던 책을 구하고 기뻐하는 손님의 표정이 가장 좋고, 보던 책을 제자리에 꽂아두는 손길이 고맙다. 책값을 무턱대고 깎는 사람은 책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일침이다. 딸 인영(이화여대 2)씨는 “부모님이 워낙 책을 좋아하시고 책을 통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즐기신다”면서 없어져가는 헌책방을 지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귀뜸이다.

고물 수익금은 한달 10여만원. 재활용, 쓰레기 감소, 고물장수 돈벌이 등 일석 삼조라는데, 수익금을 남을 위한 좋은 일에 쓴다니 일석사조일 테다.

17. 소박한 책장과 소박한 밥상

캘커타

헌책카페 ‘캘커타’(02-322-2738)는 뜻밖의 공간이다. 마포구 연남동 주택가 초입에 있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출근하고 나면 햇빛이 외로운, 그들이 퇴근할 무렵이면 밝혀둔 불빛이 외로운, 그래서 출퇴근하면서 ‘어? 이런 게 있네!’ ‘나중에 한번 들러봐야지’ 하고 생각나게 만드는 곳이다.

저녁 8시. 한적한 골목에 격자 창문 너머 불빛이 정겹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들렀다는 중년 남녀가 ‘뭐 이런 데가 있었누?’ 하면서 책을 뒤적였다. 턴테이블에 엘피판이 돌고, 벽에는 여행사진이 걸렸다. 창턱이 식탁이고 엮어진 향아리가 의자다. 미술학원 유아용 책상과 의자는 바라보면 소품이고 손님이 앉으면 탁자다. 두평쯤 될까.



그림 16: 캘커타

한쪽 벽에 책들이 꽂혔다. 600권쯤? 기억력 좋은 사람한테는 외일 법하다. 론리 플래닛 30여권, 문학과 지성사 소설, 헬렌 니어링류의 책들, ‘작은 것이 아름답다’ 9월호 및 과월호들, 터키 그림·비잔틴 문양 등에 관한 손바닥책들... 그리고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책 몇 권. 주인의 성품으로 보아 종류가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 이어진 방은 세 평쯤. 역시 비슷한 종류지만 더욱 세련되고 새것에 속하는 책들이다. 물론 바닥에는 책손과 먹거리손을 위한 탁자가 있다.

주인은 윤화용씨. 앞치마에, 예쁜 모자, 많지 않은 수염을 기른 그는 수줍다. 이름도 ‘코코넛’이라고 불러달라다가 실수로 밝혔고 나이는 그냥 30대다. 그는 인터넷카페 ‘캘커타코코넛’(cafe.daum.net/calcuttacoconut) 운영자이기도 하다. 2002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여행하는 모임’으로 꾸린 카페의 오프라인 모임장소로 가족과 함께 운용하던 미술학원의 일요일을 이용하다가 작년에 이곳에 헌책카페를 겸해 열었다. 그의 수줍음은 아이디로 통하는 인터넷 세상에서 태어난 탓일까, 아니면 95년 캘커타에서 자원봉사하면서 체득했다는 ‘봉사의 익명성’ 탓일까.

차림표의 유일한 밥인 ‘소박한 밥상’을 주문하자 현미잡곡밥에 유기농 채소로 만든 샐러드 한 접시가 나왔다. 현미밥이라 굳이 반찬이 필요 없거니와 밥에 간간한 삶은 야채를 얹어 먹을 만하다. 윤씨는 채식에다 환경주의자. 그리고 장애인과 함께사는 세상을 꿈꾼다. 주방에서 일하는 이도 장애인. 오후 4시에 교대한 주방장

김미진(22)씨는 ‘밥맛을 모르겠다’는 말에 기분이 상했다가 현미밥이 처음이라는 말에 표정을 풀었다.

지금껏 해외 일곱차례, 국내 세차례 여행을 다녀왔다. 벽에 걸린 월체어 사진과 론리 플래닛이 그 흔적이다. 몽골, 티벳, 인도, 유럽 등 두 달이 걸린다. 그러니까 책과 밥의 수익금은 장애인과의 여행경비로 쓰이는 셈이다.

지금은 10월 경주 2박3일 여행을 모집중이다. 참여자격은 환경 관련 책 한권씩 사는 조건. 먹을 것은 채식으로 각자 준비하고 남은 여행비는 현지에서 기부할 예정이다.

18. 유행 타지 않는 ‘고전’을 주인대접

신광현책

“소설은 역사장편이 좋더군요. 건륭황제, 강희대제 다 읽었어요. 《대망》, 《토지》는 두 번 읽었고요.”

신광현책(02-923-9960)의 오후. 주인 이종우(52)씨는 중화텔레비전을 틀어놓았다. 대하 역사드라마 ‘황제의 딸’이 방영되고 있었다. 건륭황제 때의 이야기여서 재미있단다.

책방이 깔끔하기는 면도를 말끔하게 한 주인의 얼굴과 흡사하다. 앉은 자리 뒤쪽에 짝 맞춰진 대하소설들이 고른 이빨처럼 꽃혔다. 길쭉한 사각공간의 책벽과 중간 길쭉한 책탑. 그리고 끝에서 꺾어드는 책창고. 책들은 대체로 분야별로 분류되어 일별하기 쉽다. 왼쪽벽은 레일식 책장을 써 두 겹이다.

“요즘 사람들 끈기가 없어요. 길거나 두꺼운 책, 글씨 많은 책 안 읽어요. 워낙 볼거리가 많아서겠지만요. 텔레비전 틀면 스물네 시간 나오지요~, 1000원만 주면 비디오 빌려보지요~.”

찾는 사람이 많은 《상실의 시대》를 보았더니 별 것 없더라면서 꽃힌 지 오랜 주홍색 삼성사상전집, 범우사판 문학·역사 고전들을 안타깝게 쳐다보았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와 움베르토 에코가 요즘은 한물 갔다. 코엘료도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존재의 빛을 열우고 너털거리게 만드는 시간의 굴레에서 모든 것이 자유롭지 않음은 헌책방에서 소롯이 드러난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손님들이 자주 찾는 것과는 괴리가 있다. 깨끗한 고전책을 많이 갖춘 것은 그 틈을 메우려는 몸짓일 테다. 고전들은 책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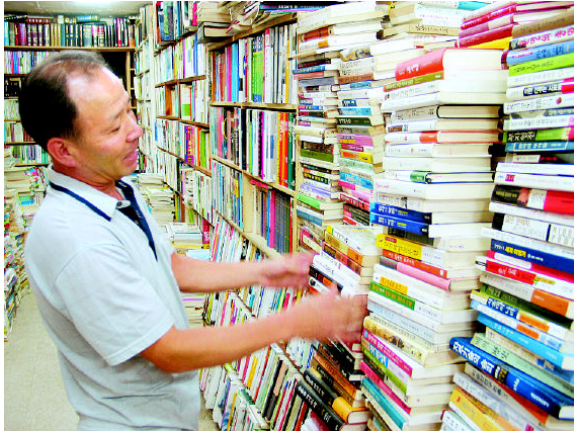


그림 17: 신광헌책

주인처럼 번듯하고 유행을 타는 신간(?)들은 뜨네기처럼 바닥에 쌓였다. 청계천, 홍릉 등 언제 어느 곳에서 떼어 왔는지 모두 기억한다. “내 눈으로 뽑아 제값 주고 사온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주.객의 긴장관계에서 선택받은 것들이라 첫눈에 깐깐하다.

책방은 성신여대 정문에서 보아 왼쪽 길을 가다가 편의점을 끼고 돌면 툭 튀어나온다. 전철역에서 가려면 여대 앞길을 지나야 하는데, 그 길을 도시라 치면 책방으로 난 길은 시골이다. 전혀 다른 세계를 몇 분 사이에 경험하는 셈. 책방행은 내리막처럼 힘들지 않으나 되짚어 나오기는 무척 고단하다. “여대 앞 책방은 잘 안 된다고 해요.” 인과를 증명할 수 없지만 갖춰둔 학술서적이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 굳이 여대 앞이라 그럴 것도 아니다. 여러 해 전 헌책방 주인들 13명으로 출발한 모임이 지금은 없어진거나 진배 없다. 8명은 새책방으로 바꿨고 4명은 아예 그 동네를 떴다. 헌책방은 이씨 혼자 남았다. 지금도 생각은 젊어서 100평쯤은 하고 싶은데 도무지 계산이 안 나온다. 지금 스무 정도 한달 110만원 집세를 내기 힘들다.

전성기 때 쓰던 재단기가 기억처럼 한쪽 구석에 있고 이씨는 손님이 고른 책을 걸레로 닦아 봉투에 넣어주었다. 그 새 중화텔레비전에서는 ‘황제의 딸’이 끝나고 ‘모택동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그림 18: 이태원 외국서점

19. “70년대엔 영문 카탈로그 엄청 팔았지”

이태원 외국서점

이태원 외국서점(02-793-8249)은 지하철 6호선 녹사평 역에서 가깝다. 구름다리 건너 남산쪽 30m쯤. 문고판 책이 똑 고르게 뉘어 쌓인 게 꼭 타일벽 같다. 현대문학, 철학, 심리학, 과학, 그리고 어린이책 등. 역시 같은 크기 문고판은 가로로 뉘었고 그밖의 판형은 세로로 꽂혔다. 그리고 보니 책방도 꼭 문고판이다.

주인 최기웅(63)씨 뒤편에 73년에 발행된 제14종 고물 영업허가증이 액자 속에 걸렸다.

기지촌에서 책을 구해다가 명동, 청계천 헌책방에 겁나게 팔았어. 남은 것은 화신백화점 옆골목에서 노점을 벌렸어. 그게 1968년이야. 3년 뒤에 여기에 자리 잡았지.

영어책 없어서 못 팔았어. 셰익스피어, 까뮈를 만나면 흥재한 기분이었지. 구두, 양복, 단추, 안경, 귀금속 등 카탈로그가 돈이 됐어. 업체에서 그걸 참고해서 물건을 만들었어. 세계 기능경기 대회에서 한국인들 입상한 뒤에는 나 같은 사람이 있었어. 말하자면 나는 애국자야.

미군부대 쓰레기 하나도 안 버렸어. 음식찌꺼기는 꿀꿀이죽으로 만들어 남대문 시장에서 팔았어. 사람들이 줄서서 먹었지. 허기진 한국인들 영양보충시킨 구황식

품이랄까. 책은 말이야. 배움에 허기진 사람들에게 ‘구황서적’이었어. 철원 운천 운산 판문점 김포 부산 군산 춘천... 안 가본 데가 없어. 그래서 딸 셋 키웠지. 요즘? 쪽박이라구. 미군부대에서는 전혀 책 안 나와. 80여군데 외국공관원들이 떠날 때 팔거나 주고 가는 게 대부분이야. 호텔에서 잡지나 포켓북이 좀 나오고... 무엇보다 부근에 경쟁 책방이 두 군데나 더 생겼어. 한군데는 외국인이 주인인데 책 빠꼼이야. 새책 싸게 들여와 팔고 무엇보다 환경이 좋아. 손님 다 뺏어갔어. 봐, 손님이 없잖아. 어찌는 수 없지만 좁은 바닥에 외국인까지 끼여 돈 벌어나가니 한심하지 뭐. 개들은 처음부터 돈 벌자 주의고, 나는 문화수입에 기여한다는 의무와 금지가 있었지.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여기 큰 복덕방 뒤엔 미국 메이저가 있어. 한국인은 바지사장이고. 형편없는 영어강사들 많아. 술자리에서 길길대면서 학생들 성희롱한 얘기해. 돈은 중국, 동남아에 가서 쓰고 들어와. 그리고 한국문화 소개하는 출판사가 있는데 미국인이 사장이야. 빌딩도 있고. 한국인들 참 호구야.

미군들 독서열 대단해. 도서관 짹짹 차. 배낭 맨 외국인 십중팔구 책 들어있어. 한국인들 백에 하나? 여기 손님도 그래. 한국 학생, 교수 거의 없어. 사가도 한두 권? 인터넷으로 새책 산다쳐도 바꿔보고 처분해야 할 것 아닌가. 양서들은 문고판으로 만들어 휴대 쉽고, 가벼운 종이에 인쇄 선명해. 빛 반사도 안되고. 우리 출판사들 반성해야 돼.

얘기해준 대신 후계자 하나 구해줘. 영어 잘하고, 컴퓨터 할 줄 알고, 출판에 관심있는 사람으로. 다 넘겨줄 의향 있어.

언뜻 눈에 띄었던 책들. 딘 쿤츠, 존 그리섬, 제임스 미치너, 파울로 코엘로, 커트 보네جت.

20. 신간안내에서 본 책들이 벌써...

집현전

버스 손님이 차 번호와 운행시각을 묻다가 책손님이 된다. 길 건너 행인도 그냥 건너오면 손님이다. 집현전(031-968-4945)이 자리한 원당은 전형적인 경기도 작은 읍내다. 부근에 아파트를 끼고 일산과 화정 길목이다.

아니, 이런 책이 벌써? 신간안내에서 본 기억이 생생한 책들이 많다. 깨끗한 사람을 거친 ‘헌책’이라는 게 주인 유경용(45)씨의 설명이다. “서울에서라면 금방 나갈 책들이죠.”



그림 19: 집현전

98년 구제금융 당시 실직한 유씨가 아내 최경희(39)씨를 믿고 일을 벌였다. 최씨는 갓난아기 때부터 부모님이 운영하는 헌책방의 살림방에서 자라 책이라면 감으로 아는 터.

“부모님이 기자촌에서 40여년 하셨습니다. 어른들이 안 계실 때는 제가 대신 했죠. 결혼 전에는 불광동에서 ‘등용문’이란 책방을 한두 해 직접 운영한 적도 있어요.”

오빠와 언니들 모두 헌책방을 거쳤다. 작은오빠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앞에서 10여년을 꾸린 바 있고 큰오빠는 30여년째 헌책 도매를 하고 있다. 남편 유씨 집도 만만치 않아 그의 동생이 미아리에서 ‘책의 향기’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형을 돕고 있다. 말 그대로 헌책방 집안이다. 모이면 화제가 책이다. 요즘 어떤 책이 잘 나가나, 헌책방의 살 길은 무엇이나 등등. 결론은 큰오빠 뒤편이다.

애기보따리를 푸는 도중 ‘화정 아줌마’가 사과 한 봉지를 사왔다. 좋은 책 싸게 사간 사례란다.

“책을 사면 아파트까지 배달해 드려요.” 주부들이 집을 지키는 경우가 많아 배달은 부인 최씨 뒤편이다. 매출의 상당부분이 어린이책과 참고서다. 일부러 찾아 오기엔 외진 게 사실. 그래서 단골손님이 많다고 했다. 개업하던 날 와서 떡을 먹은 중학생 다섯 명 가운데 둘은 대학생이 되어 지금도 찾아온다.

처음 15평으로 시작해 딸린 창고 2평을 미술책 공간으로 털어 합쳤고, 이제는

길 건너 2층의 32평 창고를 어린이책 전용으로 개방했다. 아르바이트 직원도 있다. 책이 좋아 단골이었던 분이다.

스트레스? 손님이 찾는 책이 없을 때, 1500원짜리 사면서 깎아달랄 때, 주워 오면서 비싸게 판다고 말할 때 제일 많이 받는다. “책방이 옛날 같지 않다는 말은 비수예요. 그말 안 들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요.” 책을 구하는 루트는 머느리한 테도 안 가르쳐주는 비밀이다. 단, 큰오빠한테는 한달에 세번 정도 찾아간다고 공개했다.

‘인터넷으로 팔아보라’라는 권유를 종종 듣지만 아직 그럴 생각이 없다. 찾아온 손님이 건져가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다는 게 최씨의 말이다. “찾던 책을 발견한 기분은 손님의 표정으로 단박에 전해져요. 전을 같달까요. 그리고 나면 뿌듯하고 한동안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요.”

부부가 같이 장사하지 말라는데, 이제는 이견이 거의 없다. 다만 아내쪽이 책 욕심이 많고 남편은 확실한 것만 가져온다. 고서는 인터넷으로 훑아갔다는 게 이들 부부의 판단이다. 반년에 한번쯤 걸리는 고서에는 미련을 버렸다. 일년 전부터 어린이책 전집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문 닫는 수밖에 없어요.”

21. 산더미처럼 많은 책 고르는 재미 쏠쏠

뿌리서점

서울의 헌책방을 꼽으라면 뿌리서점(02-797-4459)이 첫손이다. 왜 그럴까. 뿌리서점은 남들 다 쉴 것 같은 날에 찾아가도 문이 열려 있다. 쉬는 날은 추석 하루, 설 이틀, 신정 하루만 쉰다. 남들 다 문 닫을 시간에 가도 불이 켜져 있다. 밤 12시까지 열려 있다. 하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헌책방 첫손이라면 섭섭하다.

주인 김재욱(60)씨는 헌책방 30년. 몇해 전 20여m를 옮긴 것을 무시하면 26년째 한자리다. 용산 전철에서 내려 용사의 집 옆골목을 지나 애오라지 책방밖에 볼 게 없는 골목에서 말이다. 역과 책방과의 실제 거리에 비해 크고 호화로움과 작고 허름함 차가 무척 크다. 저녁에 그곳을 들린다면 불빛의 차이가 더하여 그 낙차는 훨씬 명확하다. 형광간판과 백열등 빛이 시야에 들어오면 책방의 외로움이 와락 밀려온다. 그래서 첫손이라면 더 섭섭할 터이다.



그림 20: 뿌리서점

책으로 좁아든 계단은 몸이 좀 부한 사람은 옆으로 틀어내려가야 한다. 입구에 고개를 들이밀면 짜잔- 지하의 헌책 세계다. 사방 벽과 가운데 네 줄 책꽂이 앞뒤. 50평 공간이 온통 책이다. 애초 김씨가 ‘민족의 이름으로’ 책값을 계산하던 자리도 책이 들어차 그는 하루종일 서성거린다. 그래서 첫손이라면 그래도 섭섭하다.

그곳에서는 아는 얼굴 한둘쯤은 마주칠 수 있다. 같은 단골일 수도, 다른 책방 주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책을 물으면 누군가한테서 대답이 나온다. 심하게 구부러진 책 《미술과 시지각》을 어떻게 펴느냐를 두고 오간 대화도 그런 예다. 10-20년 단골은 부지기수다. 김씨는 입구에 자판기를 두고 수시로 커피를 뽑아 날라야 한다. 그래서 첫손이라면 주인장은 냉큼 그렇다 할 터이다.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부담스러워요. 와 보고 실망하지 않을까 싶어요.”

뒤편이니 해도 고르는 재미가 크다. “주인이 책 욕심이 많아 점점 창고로 변해가고 있어요.” 7-8년 출입했다는 한 손님은 워낙 책이 많아 한번 들르면 시간을 잊는다고 말했다. “모자라면 깎아주고, 돈 없으면 외상 주고, 차비 없으면 빼주는” 재미도 크다. 돈 벌자고 들었으면 빌딩 몇채 지었을 거라는 게 입버릇처럼 하는 주인의 말이다. 그래서 첫손이라면 주인은 반대일 테지만 손님들은 이구동성일 것이다.

《한국회곡문학대계》1-4(한국연극협회, 한국연극사 1976), 《아동최씨고》(최원식, 신명문화사, 1968), 《여헌 장현광의 학문과 사상》(금오공대, 1994), 《뫼렌

도르프》(윌터 라이퍼, 정민사, 1983)가 설피 눈에 스친다.

“노점상이 사라지면서 재고부담을 완전히 책방주인이 져야 해요. 그래서 창고가 몇 군데 생겼어요.” 김씨는 요즘 화두는 공간 구조조정이다. 얼마 전 두 트럭 정도의 책을 파지로 버렸다. 그 정도로는 어렵잖아 인터넷을 이용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

22. 여기 아니면 없는 책 두루두루 눈에 띄네

진주 소문난 서적

4년만이다. 진주 ‘소문난 서적’(055-753-1238)은... 그도 그럴 것이 해마다 가는 지리산행이 유평리로 마무리되는 경우, 상경 고속버스를 타기에 앞서 일행과 떨어져 잠시 들르는 데이기 때문.

일부러 내려가 찾을 만큼 헌책방과 헌책에 몸살앓지 않는 자에게 지방의 헌책방은 다른 무엇을 하는 김에 들르는 곳일 수밖에.

‘소문난 서적’에서 뭘 바라는가. 새 책 값으로 두세 권 사기, 눈먼 책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얇은 수작 외에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책 구경하기. 《진주지명사》(진주문화원 펴냄), 《진양지명사》(진양문화원 펴냄) 따위.

흙투성이 배낭에 서울말씨의 꺼칠한 자의 시선이 그러한 책을 탐할 때 주인의 눈에 ‘뜨네기 산적’은 ‘웃기는 짜장면’이 아니겠는가. 주인과 객은 서로 사투리를 말하고 서로한테서 사투리를 듣는 형국. 그나마 가운데 둔 책들이 공통의 언어로 쓰여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서울행 버스가 성미 급한 백마처럼 기다리는 터, 쓰윽 한번 둘러보고 주인장 사진 한장 철컹 찍는 것으로 현장취재 끝. 이하는 전화 귀동냥이다.

주인 이무웅(62)씨는 헌책방 경륜 42년. 경남 일원에 없는 책을 갖추었다는 자부심이 크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문집총간》 등 거질을 책방 또는 자신의 집에 꽂아두고 있다. “몇 해 걸렸어요. 서울, 대구, 부산 등에 갈 때면 재고도서점이나 헌책방을 주의깊게 살펴 짝을 맞췄습니다.” 필요한 사람한테는 자료로 기꺼이 제공한다. 도움 받은 사람은 글 가운데 ‘소문난 서적의 도움을 받았다’고 언급하고 이씨는 그것으로 자부심을 느낀다. 7남매 중 맏이인 그는 중3 때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나왔다. 군입도 덜고 동생들 학비도 벌 겸 문산읍 어느 학교 앞에서 만화책 좌판을 벌였다. 빌려주고 교과서와 바꾸고 하면서



그림 21: 진주 ‘소문난 서적’

돈을 모아 동생들을 가르치는 동시에 책방모양을 갖추고 넓혀 지금에 이르렀다. 자신은 검정고시로 대학까지 나왔다.

‘권위 있는 책’을 두루 갖춘 것과 그가 입지전적인 장남임과는 동격이 아닐까. 흔히 족보는 장남이 보관하고 장남은 그로 인하여 장남임을 드러내지 않는가.

4년 전 “그런 책을 보는 사람이 책값 깎아서는 안된다”며 당당하던 이씨가 목 소리에 힘이 없다. 연말까지 가게를 비워달라는데 마땅한 데가 나설지 걱정이다. “아들이 물려준대도 싫대요. 아버지대로 끝내라면서요.” 그는 ‘더 들을 얘기 있어요?’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10여군데 헌책방은 ‘소문난 서적’외 세 군데로 줄었다. 젊은 주인이 작년에 열 어 의욕적으로 꾸려가는 즐겨찾기 서점(최준 · 055-837-6409), 경서 관련 영인본을 많이 갖춘 동훈서점(이숙희 · 055-758-4492), 셔터가 자주 내려지는 문화서점(055-753-1773)이 맥을 이을 따름이다.

23. ‘책 창고’ 같은 4평 공간서 ‘보석’ 건지는 눈 밝은 단골들

삼선서림

삼선서림(02-747-3444)은 삼선시장에 있다. 삼선 사거리, 지하철 4호선 삼선교(한성대입구)역에서 가깝다.



그림 22: 삼선서림

토속적이고 옛스런 이름에 연륜은 4년 반이다.

김상호(48)씨 혼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주 문을 잠근다. 책 구입, 배달은 물론 화장실에 갈 때도 어쩔 수 없다. 미리 전화하고 가는 편이 좋다. 오후 2시께 약속과 한 시간 어긋나니 역시 문이 잠겼다. 손전화(016-9292-3698)는 그의 늦은 점심 자리로 날아갔다.

단 4평. 한발짝 들어가면 더 못간다. 왼쪽으로 비비적거리면 두 발자국 더 뻗 수는 있다. 작은 두 책꽂이 사이에 틈이 있기 때문. 오른쪽은 쌓인 책이 다섯 겹이다.

손님이 들이면 한 사람은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 성미가 급하면 앞사람 궁둥이에 코를 대고 책을 훑어볼 수는 있다. 그야말로 책이 주인이고 책방주인 김상호씨는 손님처럼 밖에서 서성인다. “워낙 공간이 좁아서... 한 열평은 돼야 하는데...”

“빠리릭.” 주인의 전화기가 울리면 손님이 먼저 전화기를 꺼내든다. 주객의 거리는 전화가 영킬 만큼 짧다.

주인은 섭섭하겠지만 책방이 아니라 창고다. 주인이 머물던 자취는 책 틈의 전화기가 가끔 비명을 지르는 것으로 짐작할 따름이다.

20여년 헌책방을 순례한 눈썰미. 무작위로 모은 2만여권의 책을 한차례 훑어 보내고 다시 1만여권을 모았다. 그중에서 조금 헐어 책방을 시작했다. 주로 인문 계통의 책이다. 논문집, 비매품 등 다른 데서 보기 힘든 것들이 자주 눈에 띈다는

한 손님의 귀뜸이다. 아침부터 세수만 겨우 하고 그러모은 책들은 단골들이 얼추 빼가고 나머지는 고여 패총처럼 쌓인다. 주인도 3-4일 지나면 안쪽에 무슨 책이 있는지 모른다. 안다 해도 도대체 빼줄 수 없다. 이곳은 뜨네기가 책을 보면서 고르는 곳이 아니다.

“빨리빨리 순환돼야 하는데... 그제... 손이 많이 가고... 책은 묻히고...” 주인은 팔기보다 책 구하는 데 열심이다. 책무지의 표면적이 자꾸 줄어 단골과 비단골의 느낌은 자꾸 벌어진다. 좁은 공간의 비애. 문제는 공간과 책육심의 부조화다.

시장을 거쳐 찬거리 비닐봉지를 들고온 주부. 책을 골라 역시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들었다. 아이들과 자신을 위한 몸과 맘 먹거리다. 길 건너 출판사 사장이 슬리퍼 바람으로 책 구경이다. 은퇴한 백발의 교수가 “새로 들어온 책 있나?” 하고 물었다. 방금 전 아무 것도 눈에 띄지 않았던 곳에서 물고기를 개울밖으로 건져 내듯 책을 툭툭 골라냈다. 《태초 그 이전》, 《로마문화 왕국, 신라》 등등. 눈 먼 사람과 눈 뜬 사람의 차이.

“모으려는 사람, 읽으려는 사람, 구별돼요.” 분야에 상관없이 눈에 확 띄는 책을 골라가는 사람은 영낙없이 모으는 사람이다. 그는 읽는 사람한테 파는 게 더 좋다고 말했다. 증정보 책을 판다기에 옛본 신문쟁이의 서고. 쟁여두느니 싸게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가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복원되는 청계천의 상류. 내년 5월께 복개판 위에 세워진 시장이 뜯기면서 책방도 옮겨야 한다.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할 생각이다.

24. ‘문화쓰레기’는 다 버리고 좋거나 잘팔리는 책만 오롯이

책방 진호

‘책방 진호’(02-815-9363) 주인 김형창(57)씨는 하루 몇 차례 책을 버린다. ‘문화쓰레기’라고 이름했다. 중간상한테 사들인 책 가운데 30%가 여기에 해당한다. 팔리는 책과 팔리지 않는 책, 팔리지 않아도 좋은 책과 그렇지 않은 책은 금방 구별된다. 34년동안 밝힌 눈이다. 좋은 축에 들지 않는데가 팔리지 않는 책이 소위 문화쓰레기다.

노량진역에서 5분 거리, 뽕 뚫린 6차선 장승백이 길. 가게는 전면이 유리인데다 반듯한 사각형. 책들 역시 쌓이고 꽂힘에 군더더기가 없다. 벽 책꽂이 외에 여느 책방처럼 가운데 쌓아둔 게 없다. 책꽂이 앞에 종아리높이로 한겨 쌓였을 뿐. 바닥



그림 23: 책방 진호

에 들성들성 놓인 책들은 금방 어디서 가져온 듯 혹은 어디로 넘기려고 묶어놓은 듯하다. 시원하다 못해 썰렁하다.

“이 공간 금방 채워요. 일주일 정도 버리지만 않으면...” 책상에는 도서관의 정리도서와 출판사에서 나온 재고소설들이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만주 국정지도총람》(강덕 11년판) 《만주경제제도론》 등 만주국 관련 낡은 책이 묶여 있고, 발치에는 《에도시대 화가들》 《일본이계회권》 《일본 가공전승 인명사전》 등 일본미술 관련 서적이 50여권 묶여 있다. “묶여 있어야 제값을 발휘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는 ‘일괄자료’라고 설명했다.

책등이 보이지 않게 돌려놓은 책 뭉치가 눈에 띄었다. “아껴놓은 겁니다. 들여온 뒤 바로 풀면 허전해요.” 그러한 ‘비장의 것’이 있으면 가게로 나오는 걸음이 가볍다. “생각하면 우스워요. 그게 뭐 별 거라고...” 요즘처럼 힘든 때 스스로를 북돋는 부적과도 같다.

책방이름 진호는 철진, 철호 두 아들 이름의 끝자를 땀다. 아무렇게나 책방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시작할 때의 다짐이다. 지금도 그것은 변함없다.

중학생쯤 됬직한 소년이 참고서 6권을 고르고 1만원에 달려며 떼를 썼다. 주인은 “책에는 값이 있다”며 “버리면 버렸지 그 값에는 안 된다”고 말을 잘랐다. 그는 싸게 판 책은 제대로 읽히지 않는다고 굳게 믿는다. 값싸게 만들어진 책 역시 지적 자원화하기보다 소모된다고 말했다. “묵직한 책이 잘 안 팔려요. 가볍고 표지가

쌈박한 것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분야를 찾는 손님은 한번 더 본다.

책 구해달라는 사람이 더러 있지만 ‘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예전과는 달리 구하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그만이거나, 인터넷 등 ‘손가락만 까딱하면’ 구할 길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영영사전이 쌓인 데를 가리켰다. 코빌드, 롱먼, 옥스퍼드, 랜덤하우스 등 15권 남짓이다.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안 팔린다. 국어사전도 그렇고 백과사전도 그렇다. “일본에서 사전 매출이 70% 떨어졌다는 얘기를 3년 전에 들었어요. 우리는 올해부터 확 표가 나네요.”

여러 외국어에다 참고서, 소설, 인문분야 등 두루 꺾어도 임대료 걱정하고 있는 현실이 가끔은 서글프다.

그는 서랍에서 에도시대(1836년)에 발행된 ‘우키요에’ 화가 가쓰시카 호쿠사이(화광노인)의 만필집 《화본괴 2편》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치면서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책이 좋다면서 돈벌이만 생각하면 진작 걸어치웠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25. 정갈한 책에 반하고 책값 인심에 또한번 반하고

신림 현대서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가방을 멘 아주머니가 과목별로 중학교 참고서를 골랐다. 예순쯤 되었을까. 아무리 늦둥이어도 자녀를 위한 책이 아닌 듯했다. 알고 보니 2년제 수도중학교를 다니는 선여섯의 ‘늙은 중학생’이었다. 그한테서 새로움에 눈뜨는 이의 행복감이 전염돼왔다. 여기저기서 책을 뽑는 신림 현대서점(02-877-7561) 주인 하종길(60)씨의 표정이 밝았다. 오랫동안 동지를 만난 듯했다. 낙서가 가장 적고, 표지가 깨끗한 것으로 골라서 봉투에 담아 건넸다.

관악구 신림6동 시장 앞에 자리잡은 이 책방은 여덟 평. 5년 전만 해도 몇미터 떨어진 길가의 두 평 공간이었다. 20여년 동안 그 좁은 데서 먹고 살았고 딸 넷을 키워냈다. 늙은 중학생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라는 말은 그가 오기 전 주인 하씨가 던진 몇마디 말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이었다. 얼굴 가득 주름은 세월의 흘러간 자취라기보다 웃음이 인박한 상호일 터다. 말수가 적은 터, 안주인 홍양순(54)씨가 거들었다.



그림 24: 신림 현대서점

“당최 욕심이 없어요. 셋방 살 때 큰 소리 못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뜨신 물 나오는 내 집에서 사니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예요. 옛날 남산에서 신문 깔고 자던 얘기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책 욕심은 말도 못해요.”

소 풀 뜯기면서 책 읽는 모습에 반해서 결혼했다는 같은 마을 출신 홍씨는 결혼해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했다. 혼례 직후 상경하여 헌책방을 하고 보니 하는 일이 무척이나 낯익었다. 낮에는 책을 모아들이고 밤에는 둘이서 닦고, 붙이고, 다렸다. 물 먹은 것은 일일이 신문지를 끼우고 눌러 살려냈다. 손님들한테 듣는 ‘책이 깨끗하다’는 한마디 말은 부부의 긴 밤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운데 책꽂이 2개. 좌우벽 겹책꽂이. 바닥이 윤기가 자르르하고 책의 정갈하기가 새책방 같다. 《위험한 식탁》 《정도전을 위한 변명》 《한국의 단청》이 눈에 띄고 얼마전 타계한 정운영 선생의 《노동가치이론 연구》도 보였다. 통로에 책이 쌓여 한사람이 퍼질러 책을 고르면 뒷사람은 다른 통로로 가야 한다. 한 단골은 쌓인 책 가운데 좋은 책이 많다고 귀띔했다. “책이 깨끗한 것 외에 다른 책방보다 값이 싸다는 게 장점이에요.” 눈 밝은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대박’을 건졌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심심찮게 올라온다. 고서가 나오기는 하는데 잘 몰라서 자주 오는 젊은 단골한테 싸게 판다고 했다. 그 친구, 아마 꽤 좋은 책을 많이 구했을 거라고 남의 말하듯 말했다. 그의 책 욕심은 책 구하기. 예전에는 주변 고물상을 돌면 책을 두세 상자 구했는데 요즘은 한상자 건질똥말똥이다. 그래도 하루 두어

차례 고정적 순례를 그만 둘 수 없다. 구해온 책 가운데 손님들이 좋은 책이라며 뽑아들면 그게 자신의 실력인 양 기분이 좋다. 그는 책값 매기는 데는 욕심을 안 부린다. 그래서 안주인은 늘 불만이다.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새 들은 유일한 바깥양반 흥이다.

책방은 버스 정류장에서 가깝되 숨은 것처럼 틀어앉았고 시장 입구이긴 한데 쪽 들어간 골목에 있어 행인한테는 눈에 띄지 않는다. 시장을 보고 난 주부들, 아이와 손잡고 온 아버지 등 동네사람과, 사랑방처럼 늘 찾아오는 단골들이 이용할 뿐. 그래서일까, 돈과 책을 교환하는 데라기보다 정을 나누는 공간처럼 아늑하다.

26. 책도 책손님도 예우받는 곳 마음 고픈 사람 다 모여라

인천 배다리 아벨서점

인천 배다리 아벨서점(032-766-9523) 주인 곽현숙(55)씨는 책방에 없다. 30여m 떨어진 건축 공사장 지붕에서 못을 박고 있었다. 낡은 민가를 인수해 책 창고로 개조하는 것. 또 책방 옆 한 집 건너도 공사 중이다. 세 들었던 ‘배다리 아벨 전시관’을 옮겨오기 위해서다. 모두 환경친화적 자재를 쓴다.

“책은 예우받아야 합니다. 사실의 기록이기 때문이죠. 연애소설에도 시대상이 반영돼 있어요.”

공사장에서 책방으로 오는 길. 뒷길로 돌아오면서 즐비한 여인숙과 옥호가 페인트에 묻힌 ‘대산상회’를 보여주었다. 여인숙은 옛날 강화도나 먼 물에서 물건 떼려 온 상인들이 머물던 곳이고 상회는 도매집이었다고 추정된다. 세월이 더께 앉은 곳. 땅을 파면 개흙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곳이 바다였음을 비로소 안다고 전했다.

“책 손님 또한 예우받아야 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 자기를 찾고자 하는 분들이니까요. 책을 읽고 고르는 행위는 기도와 같아요. 이곳은 기도하는 공간입니다.”

25평이 무척 넓어보인다. 30여명이 들어와도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손님 각자가 기도하는 심정이려니와 통로와 벽과 만나는 곳에 작은 공간을 두어 꼭 틀어박히게 만들기 때문.

“책방은 소중한 두 존재가 만나는 공간입니다. 책방 주인은 그저 책을 정리해 주면 그만이죠.”



그림 25: 인천 배다리 아벨서점

책과의 인연은 1966년 열일곱 살 때부터. 야간중학을 다니며 책을 월부로 팔았다. 당시는 전집뿐 아니라 단행본도 그랬다. 《가정백과》 1500원짜리는 다섯달 끊어 한달 300원씩이었다. 걸으면서 종일 책을 읽었다.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하지만 그에게 ‘책은 곧 길’이었다.

“길 위의 모든 것이 책입니다. 책은 길보다 높지도 낮지도 않아요. 그저 삶을 알아가기 위해 디디는 것일 따름이죠.”

73년 스물네 살 때 두평반 책방을 차렸다. 그만큼 알고 싶은 게 많았고, 그 결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도 되었다. 당시는 큰길에서 영화학교 정문 근처 건널목까지 헌책방이 즐비했다. 그의 책방은 골목 안쪽에서 시작해 큰길 쪽으로 차츰 진출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아벨은 가지를 뺐고 다른 책방들은 점점 사라졌다. 지금은 새책방 한 곳을 포함해 6곳이 남았다. 왜 그럴까. “책방은 죽지 않습니다. 책방 주인이 죽을 뿐이죠.”

죽어가는 게 어디 책방 주인뿐이겠는가. 실제 창고를 지으면서 보니 공사장에 젊은 인부가 없단다. 깨끗하고 폼나는 정보기술 쪽으로 몰려간다는 얘기다. 젊은 이들에게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서라는 진단이다. “책만 읽힌 아이는 머리 큰 귀신을 만듭니다. 설거지도 같이 시켜야 합니다.”

에프엠 선율이 책 사이로 스며들었다. 뚝뚝한 책들 가운데 《월인석보와 법화경언해의 동의어연구》, 《당쟁으로 보는 조선역사》 《발칙한 한국학》 《한국여성

사》(모두 3권)가 눈에 들어왔다.

“책은 제값은 물론 몸의 수고와 함께 먹는 양식입니다.” 인터넷으로 ‘꼭 짚어먹는’ 세태가 아쉽다.

마음 고픈 사람들이 세상을 읽어가는 연습도 하고, 삶의 의미를 읽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살아있는 글들이 살아있는 가슴에.’ 명함의 글이다.

책방이 넓어보이는 이유가 있었다. 인천은 복받은 도시다.

27. 인터넷 거래 주로 하지만 찾아오는 손님이 더 반갑다

인천 부개동 책사랑방

책사랑방(032-501-5011·인천시 부평구 부개동)은 문 연 지 채 2년이 안 된 새 내기다. 주인 오한택(37)씨 역시 새내기다.

오씨는 개점 초 업자와 검지 사이의 근육이 무척 아팠다. 눈도 침침하고 따끔 따끔해서 눈을 감고 쉬어야 할 정도였다. 책먼지 때문에 가래도 많이 생기고 목도 아팠다. 적지만 사기도 당했다. 한두 권씩 세차례 책을 사간 아주머니가 어느 날 급히 4만5천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5만원을 선뜻 ‘빌려’주었다. 물론 그 이후 아주머니는 소식이 없다. 모두 수업료거니 한다.

손님은 하루 다섯 명 안팎이다. 오씨는 “월세 내고 책 사들이고, 손님과 탕수육도 시켜먹지 않느냐”며 느긋하다. 애초 온/오프 겸할 생각이었는데 자리가 외지고 2층이어서 온라인에 주력한다.

하루 50권 정도 올리고 20권 정도 나간다. 바쁠 때는 100권까지 올렸는데 요즘은 뜸한 편이다. 오전에 홈페이지(booksarang.com)에 올리고 오후 4시에 주문을 마감하고 5시께 발송한다. 스캔하고 이미지와 서지를 올리는 등 반복되는 일이라 따분하다. 인터넷 거래는 사람냄새가 없는 편이다.

찾아오는 손님이 무척 반갑다. 서울, 수원, 일산 등 외지 손님일 때가 많다. 밖에서 손전화를 받으면 피시방에서 기다리라고 부탁한다. 사용료는 대신 내주거나 책값에서 빼준다. 화내는 사람이 의외로 없단다.

온·오프를 겸하니 부작용이 있다. 책을 찾지 못해 주문에 응하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다는 것. 가나다, 또는 작가순으로 정리한 책이 손을 타 흐트러지면 우연히 눈에 띄지 않으면 용빼는 재주가 없다. 그래서 책꽂이에는 ‘보신 책은 꼭 제 자리에’란 메모가 붙어 있다.



그림 26: 인천 부개동 책사랑방

쉬는 날도 없이 일하다가 요즘은 일요일은 쉰다. 평생 이 일을 하려면 잘 쉬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아이들과 밖에 나가 놀다가도 책방을 보면 직업병이 도진다. 새책방, 헌책방 가리지 않고 들어가 책을 산다. “책 사는 것도 중독이더라고요.”

어떤 손님이 책을 무지하게 많이 사기에 좋아라 했는데 알고보니 다른 데서도 똑같았다. 그런 손님은 읽기보다는 책장을 채우려는 목적이 크다. 눈길을 끄는 책은 있어도 또 사고, 남들한테 넘기기도 한다. 책꽂을 공간이 모자라면 슈아내고 또 채운다. 수집가가 훑고간 자리는 멀쩡한 책이 남아나지 않는다. ‘그 책방엔 변변한 책이 없더라’는 소문이 나면 나머지 책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인터넷에서는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

파는 게 능사가 아님을 깨달았다는 오씨는 ‘양서’의 경우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올린다. 소수가 책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적더라도 꾸준한 매출을 위해서다.

어떤 책은 겉보기와 달리 내용이 부실하다면서, 어떤 책은 이미 주문이 들어온 것이라면서, 어떤 책은 읽지 못할 것 같지 않으나면서 사지 말라고 권했다.

그는 책방을 1층으로 옮겨 손님을 대면하고 직원을 두는 게 꿈이다. 커피 끓이는데 쓰는 버너를 내년에는 산에 가서 쓰게 되기를 바라는 작은 꿈도 있다.



그림 27: 굴다리 헌책방

28. 논팔아 50년전 시작한 천직 손님 적다고 그만둘수 없죠

굴다리 헌책방

용산선은 용산역을 출발해 가좌역에서 경의선(서울-신의주)과 만나는 짧은 철길이다. 지금 그 길은 레일과 침목이 건히고 굴착기들이 동원돼 파헤쳐지고 있다. 그 길에는 인천국제공항철도와 경의선이 지하로 놓일 예정이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두 철길은 각각 지하 1, 2층으로 높이를 달리하여 달리다가 현재 가좌역 직전에서 갈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30년 전부터 기차소리를 배경음으로 들어온 마포구 공덕동 굴다리 헌책방(02-706-2338)은 이제 굴착기와 덤프트럭의 소음 가운데 있다. 이 소음이 2009년 말에 끝나면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될 듯하다. 그렇게 되면 전혀 새로운 환경에 맞춰 인간 생태계가 새로 조성되지 않겠는가. 책방 주인 양연배(66)씨는 그것을 지레 걱정하지 않는다.

변신 중인 용산선 옆은 철마의 소음과 진동 탓에 독특한 풍경을 띠어왔다. 작은 한옥들이 다닥다닥 붙어 오랫동안 지친 어깨를 기대어 왔다. 거기에는 불편을 감내할 용의가 있는 영세민들이 살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 자리잡았다. 사람이 모일 만한 곳은 안주가 푸짐한 대폿집이 들어서고, 한가진 곳은 점집이 들어섰다. 대포가 지친 육신을 위로한다면 점장이는 미래의 불안을 달래 주었다.

굴다리 헌책방은 상호가 없다. ‘헌책 사고팝니다’라는 메시지와 전화번호가 붙어 있을 뿐, 현재의 호칭은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따름이다. 철길을 마주한 책방은 오른쪽으로 네개의 음식점을 거느리고 있다. 돼지껍데기를 안주로 하는 소주와 막걸리가 주메뉴다. 거느리고 있다고 표현했거니, 그것은 낮동안에만 유효하다. 가난한 월급자들이 하루일을 마치고 모여들어 흥성스런 술판을 벌이면 책방은 음식점의 끝에 붙어 그 존재가 가뭇해진다.

오후 4시. 철길 공사장에는 네팔에서 온 듯한 이주노동자가 경광봉을 들고 경비를 서고, 책방 옆 음식점 앞에서는 담배를 피나문 남정네가 숯불을 피웠다. 기차길 옆 동네가 깨어나는 시각. 책방주인 양씨는 오랫동안 양복차림이다. 친척 결혼식에 갈 참으로 잠시 들렀을 뿐이다. 평소 즐기던 북과 채가 동글의자에 얌전히 누워 있다.

양씨가 헌책방을 차린 것은 열아홉 살 1958년 여름. 아버지를 졸라 논 판 돈으로 동대문백화점 앞 경전 담벼락에서 헌책방을 열었다. 대학천변, 아현동 삼거리 등을 거쳐 여기서만도 30년이다. 책이 없어 못팔던 때는 이제 기억에만 존재한다. 책방은 전방후원형. 입구에 새부리처럼 책들이 삐죽이 나와 있고 문을 열고 들어서면 양쪽이 책벽이다. 세 발자국 정도 ‘전방’ 통로를 지나면 ‘후원’에 주인 양씨가 책을 두른 채 북채를 잡고 있다. 전기난로의 따스함 범위만큼이나 움직이는 책의 범위도 좁다.

2시께 문을 열어 자리를 지키다가 7-8시가 되면 양씨는 ‘마나님’이 운영하는 음식점 장수갈매기로 자리를 옮겨 손님 시중을 든다. 책손님이 오면 달려와 잠시 책방주인으로 변신한다. 매출은 음식점에 비하면 ‘새밭의 피’. 그래도 책방을 그만 두지 못하는 것은 책방이 곧 그의 인생이기 때문이다.

“볼 만한 책이 있어야 말이지.” 남들이 비웃고 간다면 절대 소개하지 말라고 했다. 《신라금속공예연구》《의방유취》1-5권(4권 없음), 《향약집성방》이 눈에 띈다. 아무렴 책 없는 책방이 있을까.

29. 시험 관련 책만 찾는 대학생 외국인들 왕성한 책욕심 배웠으면

정은서점

은행나무가 여름의 기억을 떨구는 오후. 정은서점(02-323-3085·서대문구 창천동 92-6)은 유리문으로 계절과 격절돼 있다.



그림 28: 정은서점

켜켜이 고인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아득한 여행이 시작된다. 30평 사면 벽의 책들은 눈길에 높아질수록 과거로 이끈다. 사다리가 필요할 정도로 시간의 기울기가 가파르다. 하여, 나무 또는 알미늄으로 된 4개의 사다리가 갖춰져 있다.

가운데는 8개의 책꽂이가 두 줄로 분야를 나누어 시간의 축적을 받치고 있다. 벽과 책꽂이는 넘쳐난 책들을 치마처럼 돌렸다. 책꽂이는 새끼 책꽂이를 달아 분야에서 넘친 책을 거느리고, 책꽂이와 책꽂이 사이는 3중 선반을 대어 두 분야에 걸친 책들을 이고 있다. ‘선반을 인 두 책꽂이’는 자연스럽게 문이 되어 책방 안 세계의 문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 문을 지나면 실용학문에서 시·소설로 넘어간다. 두 권 이상으로 된 책은 비닐로 묶어 흠어짐을 막았다. 두번째 문은 창고. 그곳에는 한풀 더 시간을 덮어쓴 영인본, 발굴보고서 등이 쟁여져 있다. 세번째 문은 왼쪽 벽 가운데쯤. 책을 사러 가는 일 외에는 종일 격절돼 있던 주인 정재은(60)씨가 안쪽에서 셔터를 내리고 현실로 돌아가는 작은 출구다.

오후 3시. 정씨가 오토바이 헬멧을 벗으며 들어왔다. 11시30분에 책방 문을 연 뒤 전화를 받고 책을 사오는 길이다. 그의 아침은 새벽 5시 운동으로 시작된다. 아침식사를 하고 부부가 함께 둘째 딸을 학교에 데려다 준다. 초등학교 때 하반신이 마비된 이후 중고교를 거쳐 대학생인 지금껏 거르지 않은 일이다. 달그락 달그락 늦은 점심. 71년 길음동에 점포를 내어 시작한 책방이 명지대 앞에서 살림집과 분리하면서 싸운 도시락이 20여년째다.

“열심히 살아도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정씨는 20여년 써온 장부를 펴 보았다. 지난 10월 매출이 10년 전인 95년 10월치에 훨씬 밀돌았다. 그렇지만 그 동안 책방 보증금은 세배, 월세는 두배로 올랐다. 올들어 책을 한 권도 못 판 날도 있었다. 생전 처음 겪는 일이다. 69년 첫 직업으로 택한 이래 36년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가게이름을 쓸 만큼 열심이었고 책을 돌리는 일을 ‘문화사업’이라고 자부해온 터에 황당하다. 지난 환갑날도 도시락을 싸들고 책방에 나왔다고 했다.

책상 위에는 걸레와 풀통을, 그 옆 손이 닿을 거리에 노끈과 청소기를 갖췄다. 시세와 개정판이 나온 해 등을 기록한 수첩, 인터넷에 올린 책 목록과 가격표는 손때가 묻었다. 눈 닿는 데에 버스노선표, 엔·원·달러 환율, 중국과 일본의 연호 등이 잘게 메모돼 붙여져 있다.

요즘 대학생들 단순하게 공부해 시험에 나오는 책만 찾는 반면 가끔 들르는 외국인들의 책욕심은 각별하다고 말했다. 한국학을 공부한 어느 일본인의 경우 들를 때마다 꾸러미로 사고 돌아갈 때는 택시를 부를 만도 한테 킁킁거리며 버스를 타는 게 인상적이었다.

이곳은 책들이 만만치 않으니 욕심은 금물. 《여지도서》(국사편찬위), 《청춘극장》(김래성, 성음사) 《춘향전의 비밀》(설성경, 서울대출판부) 《딸 그리고 함께 오르는 산》(제프리 노먼, 청미래) 《현대의 섬》(정호경, 운디네)이 보인다.

30. 형제가 함께하는 인터넷서점 재고 4만권… 3만원 이상 무료배송

책의 향기

장기완(53), 장기성(52)씨 형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헌책방 ‘책의 향기’(bookperfume.co.kr)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맞은 편 골목에 있다.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는 건물주인이 싸게 빌려준 탓에 이 책방은 주택가까지 파고든 유흥업체 사이에 끼어 향기를 풍긴다.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면 30평 지하에 책들이 수련수련 얘기를 한다. 눈에 익은 느낌이 드는 것은 책방 풀이 동네책방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반을 갈라 한쪽은 참고서, 다른 한쪽은 일반서적이다. 물론 각각의 반절은 일관된 원칙 아래 정리돼 있고 넘친 책은 그 어둠 바닥에 누워 쌓였다. 책 찾기가 쉬운 탓일까. 한번 휘돌면 전모가 잡힌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어른 턱까지 차오른 책더미는 표면만 보여



그림 29: 책의 향기

줄 뿐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길이 없다. 기성씨 말처럼 별 것 없지는 않은 것이 책등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제목들이 심상치 않다.

작은 사무실에는 컴퓨터가 3대, 프린터가 1대 갖춰져 있고 책상에는 전날 메인 페이지에 올린 책들을 비롯해 ‘힘센’ 책들이 모셔져 있다. 벽에는 《짚레꽃》 《국사대관》 등 비교적 오래된 낡은 책들이 꽂혀있다. 《완역 용비어천가》 상중하(이윤석, 효성여대 한국전통문화연구소), 《한 사가의 유훈》(이홍식, 통문관)이 도드라졌다. 넘쳐나 책꽂이 아랫도리를 가린 책 사이로 비교적 멀쩡한 《임궏정》 낙질 화적편이 숨어 있다.

사진 찍기 싫다는 기성씨를 꼬드겨 자리에 앉혔다. 넓고 두꺼운 안경알 너머 선량한 눈빛이다.

“원래 수집상으로 시작해 도매를 했어요. 그런데 헌책방들이 하나 둘 없어지면서 책을 대줄 데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팔게 된 거예요. 책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1985년 다른 장사를 그만두고 시작한 책 장사가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 2003년 인터넷 서점을 열면서 공무원을 명퇴한 형 기완씨도 가세했다. 선발 동생이 책을 사들이고 후발 형의 뒤편 파는 일이다. 인터넷 등록은 주부 1명이 시간제로 맡았다. 하루 150여권을 올리면 50~70권이 나간다. 현재 인터넷에 표시된 재고는 3만여권. 올리지 못한 책을 포함하면 4만권쯤 된다. 최근 20평 창고를 새로 얻어 굵어지고 쌓인 책들을 퍼놓을 생각이다. 책찾기가 지금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본다.

3만원을 넘으면 거저 부쳐주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는 한번 주문이 웬만하면 3만원을 넘었는데 요즘은 필요한 것만 한두 권 주문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헌책방은 희망이 있다고 봐요.” 기성씨는 도매 시절 거래하던 책방들과 협력관계를 맺어 이곳에 없는 책도 찾아서 배송해 주려고 한다. 그리고 교과서와 참고서를 고루 갖춘 것은 남다르다. 그는 눈길을 확 끌만한 주도품목이 없어 고민이라고 했다.

“구별로 또는 몇개 구가 합쳐 헌책방 거리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부산 보수동이나 청계천처럼 특성화하면 손님과 책방은 책 거래하기 쉽고 구에서도 명물거리로 파생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자연스럽게 모여든 신촌의 헌책방들이 부럽다.

들어올 때 함께 있었던 형 기완씨는 인터뷰 내내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31. 인간의 궤적이 패총처럼 쌓인곳 감히 ‘순례’라 일컫는 까닭이다—헌책방 순례 뒤돌아보기

낡은 책은 현재에서 멀어진 책. 낡아서 생기는 효과는 대개 두 방향. 컴퓨터처럼 업데이트가 가치인 분야는 쓸모 없어질 터이고, 문학작품처럼 쌓임으로써 빛나는 분야는 가치가 높아질 터다. 그러나 한 사회 또는 한 인간의 궤적인 점에서 전혀 값없는 것은 없다. 컴퓨터 용어의 변천에 관심둔 이한테는 사용설명서도 귀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헌책방은 그런 책을 파는 곳이다.

헌책방 순례라 했다. 순례는 찾아가며 예를 표하는 것이니 존송은 아니어도 존중의 염이 깔렸다.

천지사방 흩어진 그런 책을 한 곳에 모으는 일이 헌책방 주인몫이다. 분별하는 눈썰미의 그들은 버려진 파지몽치에서 쓸쓸한 것을 건져내고, 죽어서 흩어질 운명의 개인 장서를 거두어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필요한 이에게 전한다. 책은 돌고 돌아 낡지 않는 콘텐츠를 전하고 자체는 너털거려 사라질 때 제값을 한다. 그 순환의 한 고리를 맡아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니 헌책방 주인의 공덕은 작지 않다.

그들의 일과는 파지간과 고물상을 뒤지고, 묶어서 지고 나르고, 닦고 붙이고 쫓는 일. 폐포는 먼지가 쌓이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고 손은 갈퀴처럼 불쌍 사납다.



그림 30: 헌책방 순례 뒤돌아보기

설핏 보아 힘들고 구질구질하여 맑은 바 구실과는 달리 영 품나는 일이 아니다. 하여 때로 좀글붙이들한테 당신이 뭘 알아? 무시당하고, 좀노랭이한테는 거저 얻어 비싸게 판다고 타박을 당한다.

하니, 순례라 제목 붙여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하기로 망발은 아닐 터이고 ‘책과 지성’ 섹션의 꼬리에 붙어 어색하지 않을 터이다.

“헌책방은 사양업종”이라는 말은 주인들한테서 더 쉽게 듣는다. 호시절이 있어 흘린 밥도 주워먹던 때가 그때다. 이제 밥 없으면 피자 사먹지 하는 때, 제 자식한테는 새 것만을 사주겠다는 사람들한테 헌책은 당치 않는다. 책방은 피자가게를 피해 한적한 골목에 돌아앉았고 핸드폰 가게에 밀려 고가도로 그늘에 숨어 지나가는 이의 눈길은 못 끌고 찾아오는 이의 발길이 닿을 따름이다.

책이 마른다는 얘기도 공통이다. 귀중한 고서는 해를 거르고 그냥저냥 쓸만한 책들조차 점차 만나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구제금융 이후 그런 현상은 더하니 새책의 출판과 소비가 줄어든 것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한다. 더불어 박제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인터넷과 책을 권하지 않는 대학입시 제도의 영향으로 책이 팔리지 않은 탓도 있다. 그래서 책방 주인들은 눈에 띄면 띄는대로 책을 모아둔다. 동네책방은 웬만하면 중간상인들한테도 책을 넘기지 않으려 한다.

책과 손님의 연결망이 성글어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인터넷 판매. 웬만한 책방이면 홈페이지를 만들어 두고 표지와 서지정보를 띄워 전국의 독자로 손님 삼

는다. 특히 2차 책방의 경우 특화전략도 가능한 불황 타개책. 인문사회, 또는 미술 관련 서적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 고서 또는 희귀본만을 판매하는 곳이 그러한 예다. 이러한 곳은 입지가 중요하여 특정지역, 또는 인터넷에 동지를 틀었다.

헌책방의 어려움은 책의 순환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다. 책은 결코 모실 것이 아니다. 다만 지식과 정보, 그것을 순환시키는 매체로 의미 있을 뿐이다. 쌓아두어 죽은 책을 살리는 곳이 헌책방. 주변에 흑 씩어나는 책이 없는가 둘러보시라.

32. 어지럽게 쌓인 ‘괜찮은’ 책들 한번 쓱 보는데도 30분 걸려

의정부 헌책백화점

컴퓨터 모니터는 영롱한 꽃을 한없이 피워 올렸다. 의정부 헌책백화점(031-876-6231) 주인 김용석(54)씨의 겨울나기다. 여름부터 시작한 꽃 사진. 그의 가슴에는 훈장처럼 디지털 카메라가 걸렸다.

“사람을 찍으면 시비가 일지만 꽃은 그렇지 않아요.”

의정부 고교생 몇이서 책을 안고 나갔다. 조금 뒤 병거지에 외투로 무장한 사내가 들어왔다. 자전거로 한 시간 걸려 상계동에서 왔다는 그는 ‘이삭줍기’를 한다며 책장 속으로 스며들었다. 다음, 의정부 여고생 둘이 참고서를 팔러왔다. “주는 대로 받아라.” 자연스럽게 말을 주고받고 천원짜리 몇장을 들고 나갔다.

3-4년 전에 두 군데가 없어지고 부근에서 유일하게 남은 헌책방. 이곳은 학생들의 발길이 잦다. 학기 초와 말은 그야말로 학생들이 큰 손님이다. 서울과는 달리 학생들이 헌책으로 공부하기를 스스로없어 하고 학기가 끝나면 팔기도 주저하지 않는다. 의정부스런 표정 아닐까.

헌책백화점은 2000년 10월 이곳 28평 지하실에 동지를 틀었다. 95년 가능초등학교 앞에서 시작해 헌책방 10년 이력이다. 가재울이 증발해 땅이름으로만 남고, 의정부여고 정문이 후문으로 뒤바뀌는 동안 의정부 헌책백화점은 이 지역 헌책방 대명사로 자리를 굳혔다.

학생용 책은 안쪽에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고 나머지는 책들은 대충대충 꽃히고 쌓였다. 대부분의 책꽂이 사이는 한 사람이 옆걸음으로 지나야 하고 어떤 데는 책이 덧쌓였기도 하지만 바닥에 책이 흩어져 차마 발을 디딜 수 없다. “내 죄가 큼니다. 책만 모으려고 했지, 제대로 정리를 못 했어요.” 한번 쓱 둘러보는 데도



그림 31: 의정부 헌책백화점

30분은 족히 걸린다. 성마른 눈길에 《황진이》(유주현, 범서출판사, 1982) 《향가 고전소설 관계 논저목록》(화경고전문학연구회 편, 단국대 출판부, 1993)이 잡힐 뿐이다. 고서를 따로 보관한다는 방에는 《한국현대소설이론자료집》 40권 완질이 꽂혀있다. 언뜻 보아 몹시 어지러운 계단 아래 공간에는 ‘괜찮은’ 책을 되는 대로 던져두었던단다.

“어디 무슨 책이 있는지 잘 몰라요.” 책이 많은 것만큼은 자부한다는 그한테 책의 위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중·고교생 외의 손님들은 이름으로 책을 찾을 게 아니라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보물’을 건져야 한다. 그래서일까. 가격도 낮다. 정가 7천원 이하는 2천원, 7천-9천원 3천원. 9천-1만2천원은 4천원이다. 순 의정부식이다. 미군부대가 있어 영어책이 있을까 했으나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 원서는 얼마 되지 않았고 낡은 앤 라이스가 눈에 띄었다. 몇마디 더 묻고자 주인의 자리 옆 동글의자에 앉았을 때 《개가 있는 따뜻한 골목》(김기찬, 중학당, 2000)이 보였다. 눈높이를 달리하면 보이는 게 다르지 않겠는가.

주인 김씨는 비닐봉지에 담아 책을 건네주면서 두 가지를 더 챙겼다. 비타민 알약과 책방스티커. 시간제로 책방일을 도와주는 김경진(26)씨는 주인 김씨가 학생들 사이에서 ‘쏟라씨 아저씨’로 통한다고 귀띔했다. 미혼인 주인은 학생들한테 책을 팔고사는 게 재밌다고 했다. 그가 사이버에서 키우는 꽃과 착한 의정부 학생들과 겹쳐 보였다.



그림 32: 책나라

33. 눈길 끄는 쟁쟁한 역사자료 많아... 적자 메우려 중고 물품도 판매

책나라

전철 회기역과 경희대 중간, 사거리에서 외대 쪽으로 20m쯤. 길 가에 옷, 등산화, 스키, 텔레비전 등 헌 물건들이 가격표를 달고 앉았다. 그것에 눈길을 주며 건노라면 갑자기 책들이 길을 막는다. 헌책방 책나라(02-960-7484). 알록달록 촌스런 간판.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면 웬걸, 쟁쟁한 책들이 차렷자세다. 시골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 가득한 서울내기들을 보는 기이함.

주인 김경희(51)씨는 《조선인의 나아갈 길》(현영섭, 녹기연맹판, 소화 13년 8쇄), 《조선은 어떤 것인가》(다카마쓰 겐타로, 소화 16년), 《뺨어나가는 조선》(지은이, 펴낸 날 미상) 등 일제 때 발행된 친일자료를 눈호사감으로 내놨다.

“저기요, 중고 텔레비전은 잘 나오죠?” 텔레비전이 좋아보이는지 손님이 물었다. “물론이죠. 그런데, 안테나가 없어서 여기서는 켜 봐도 알 수 없어요.”

현영섭. 일본인보다 더 극렬한 일본주의자. 조선 민족을 일본 민족으로 만들지 못해 안달이 나 있었던 인물. 중추원 참의를 지낸 그의 아버 현현에 이은 골수 친일파다. 《조선의 나아갈 길》은 그의 지론인 ‘내선일체’에 관한 글을 모은 작은 책. 1938년 1월 초판을 나와 일곱 달만에 11쇄를 찍었고 연말까지 1만권이 팔렸더니 당시에는 베스트셀러였다.

“근데, 채널이 몇 개나 나와요?” “웬만큼 나올 거요. 여관에서 쓰던 거거든요.”

맛보기 책들은 여의도, 강남 등 일제 때에 이어 잘 나가는 집에서 노인이 사망하거나 집안 전체가 이민을 가면서 흘러나온 책 가운데 몇몇 예다. 젊은이들이 ‘냄새나는’ 것을 정리하면서 족보는 물론 훈장, 사진 할 것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흔적을 없애는 경우가 많다. 문화재의 옛모습 사진이 든 책자, 조선시대 한시집, 6·25 참전자료 등 소중한 자료가 되살려진 것은 순전히 눈밝은 헌책방 주인 덕이다. 3년 전부터는 책 외에 전자제품 등 중고 물품도 가져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요즘처럼 책장사가 잘 안될 때는 적자를 메워주는 호자라고 귀땀한다.

“3만원에서 좀 빼 주면 안 될까요?” “그러세요. 2만5천원만 주세요.” 텔레비전 가격표가 ‘팔렸음’ 쪽지로 바뀌었다.

그는 학생들이 책을 너무 멀리한다고 걱정이다. 한영사전을 사러온 한 학생이 한독사전을 집어들기에 알고보니 한자를 모르더라. 《동아원색대백과》 30권을 5만원에 내놓은 지 한달이 지났다. 그래도 일요일마다 자녀들 손잡고 들르는 사람들이 있고 흥천 등지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 힘이 난다. 마침 창쪽 난로 앞에서 얼굴이 달궈진 학생이 약속시간의 자투리를 이용해 소설책에 빠져 있었다.

삐걱거리는 마루바닥, 전신거울이 달린 칸막이. 옷가게 흔적을 그대로 둔 것이나 통로 중간에 책꽂이를 올려 한뼘 허튼 곳 없이 ‘괜찮은’ 책으로 깔끔하게 꽂은 것이나 주인의 품성 그대로다. 8평 좁은 공간은 10평으로 소개해 달라는 주인의 말을 그대로 따라도 좋을 만큼 넓다. 한두 달 거르면 책이 완전히 바뀌어 손님들이 낯설어 한다는 자랑이다. 안주인이 ‘마당쇠’라 부르는 바깥주인이 이런 책도 있다면서 슬그머니 가져왔다. 포장도 뜯지않은 《광주이씨가 승정원 사초》(서울 역사박물관 펴냄).

2006년

34. 전국 유일의 기독교책 전문점 이익금은 선교활동에 보태

크리스천 중고서점

지난 12월 말 어느 날 오후 동작구 사당동 크리스천 중고서점(02-3474-5594. cubook.co.kr). 한 신학생이 책을 골랐다. 한아름 계산대에 옮겨놓고 다시 책꽂이 사이를 훑었다. “더러우면 어때요. 싸게만 주세요.” 대부분 새책같은 헌책을 찾는데 반해 그는 밑줄이 그어졌거나 낡았거나를 가리지 않았다. 3만원으로 빈 배낭을 책으로 가득 채운 그는 뿌듯한 표정이었다. 30분 정도 머물면서 그만큼 책을 고른 것은 그의 눈썰미 덕이지만 책들이 출판사, 주제별로 깔끔하게 정리된 탓이 크다.

목장갑과 토시로 중무장한 주인 이성애(48)씨는 책의 위치와 서지사항 역시 준비된 듯 척척이다. 2000년 8월 처음 25평으로 살림을 겸해 책방을 차려 5년이 지난 지금은 70평 공간에 책을 가득 메우고 있다. 뿐더러 12월 들어 2주째 3,500여권의 책이 서울 제기동과 잠실, 안양, 인천, 충북 청원, 대구 등지에서 들어오고, 필리핀의 신설 신학교에서 원서 500권을 한꺼번에 빼가는 등 책의 드나들이 빈번하다. 인터넷 판매도 겸해 이씨 부부와 딸, 그리고 아르바이트 1명 등 4명이 달라붙어야 할 만큼 분주하다.

책값은 정가의 반값을 기준으로 하되 상태와 수요에 따라 40-60%를 오간다. 책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대부분 목회자나 신학생인 만큼 제 값에 중개해야 한다는 게 이씨의 지론이다. 그래서 100원 단위만 빼줄 뿐 깎아주는 법은 없다. 미아리에서 별려서 찾아왔다는 한 목사는 5만원어치를 현금으로 사고 3만원어치는 카드를 긁었다. 그래도 미진해 머뭇거리다가 책 한권을 더 집어든 그는 “그냥 드린다”는 주인의 말에 감격하고 말했다.

전국 유일의 기독교전문 헌책방인 이곳은 신학 교과서, 성경 주해서, 각종 설교집 외에 신앙 관련 잡지와 단행본을 고루 갖췄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몰트만, 한국신학연구소), 《모세와 출애급》(주희석, 대한기독교출판사), 《종교와 소외》(그레고리 바움, 이원규 역, 대한기독교출판사),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서인석, 분도), 《예수 바울 요한》(유동식, 대한기독교서회) 등 일반인의 눈에 띄는 책도 있다. 《요세푸스》는 시디로도 준비돼 있다.

“5년 뒤에는 부부 선교사로 나갈 생각입니다.” ‘자비량 선교’, 즉 교회의 지원 없이 자비로 중국을 오가며 선교활동을 하는 목사 남편을 따르겠다는 것. 아내는 책방으로 돈을 벌고 남편은 목회와 선교로 돈을 쓰는 쪽이다. 5년 만에 이렇게 크게



그림 33: 크리스천 중고서점

성장한 것은 신학생 때 서점 알바를 했던 남편의 도움이 컸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씨는 말했다. 이익금은 남편의 선교활동 외에 다른 이의 선교활동에도 나누어 보탠다는데, 사용처와 액수는 굳이 밝히지 않았다.

마음이 가난한 주인과 손님들이 모이는 공간이니 이곳은 천국이란 말인가. 어쨌든 책을 좋아하는 기독교인에게 적어도 이곳에 머무는 동안만은 행복할 터이다. 벽에 걸린 시계는 세속의 시간을 가리켰고 주인은 책값으로 현금 외에 카드와 상품권도 받았다.

할인점 2층에 자리한 책방을 나와서 보니 3층은 교회, 지하는 술집이었다. 술을 마시면서도 기도를 하는 사람은 착하고 기도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은 나쁘다는데.... 언뜻 스친 짓궂은 생각.

35. 상태 좋은 책 체계적 분류... 입금 당일 배송 원칙 지켜

모아북

《훈몽자회》(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83), 《희망은 아직 버릴 수 없다》(김소운, 남향문화사, 1964). 《조선 탐파의 연구》(고유섭, 을유문화사, 1948). 책방에 없던 책들이 인터넷사이트(moabook.co.kr)에 떠 있다. 회원들이 책을 팔고 사도록 했다더니 그것이군! 5% 수수료에 입금관리를 해준다는, 손해 볼 때도 있지만



그림 34: 모아북

사이트를 풍요롭게 한다는...

마포구 성산동 모아북(02-324-8789)의 저녁 7시는 한산하다. 문 닫을 무렵이려니와 배송료를 아끼려는 손님이나 동네사람 또는 단골이 들를 뿐 굳이 찾아가기 어려운 곳에 자리잡은 탓이다.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과 월드컵경기장 중간, 찾기는 쉬운데 큰길에서 서점까지 낙차가 무척 크다.

2층 철문을 열면 25평 공간이 주인 천우용(46)씨 표정 만큼이나 밝다. 깔끔하게 정리한 서가에서 밝음은 두배가 된다. 명퇴전 대우차에서 부품창고 관리를 한 그는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정리함으로써 책 찾는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했다고 자랑이다. 상태가 좋은 책만을 취급함과 아울러 입금당일 배송하는 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입구의 컴퓨터 부근에는 입력을 기다리는 책이 쌓였고 그 뒤에는 배송할 책들이 주문서를 물고 대기 중이다. 책꽂이 사이를 ㄴ자로 돌고 나서 드는 느낌은 ‘책이 뭉다!’ 보통 헌책방이 괜찮은 책을 책꽂이의 눈높이 부근에 꽂아두는 데 반해 이곳은 몇 개의 분야를 나눠 그 안에서 출판사별 가나다 순으로 꽂아두었다. “못 찾는 때는 거의 없어요.” 넘쳐나 바닥에 쌓인 책도 그 원칙대로다. 공간 제약이 없을 듯한 인터넷책방. 하지만 천씨는 공간이 적어 사들인 책을 바로바로 인터넷에 올릴 수 없다. 현재 따로 둔 2개의 창고에는 올리지 못한 책들이 그득하다.

2003년 공덕동 서점을 인수해 인터넷으로 시작했다는 천씨는 “책을 잘 모른

다”고 말했다. 애초 2만권은 거의 쓸모가 없어 버렸다. 이젠 잘 팔리는 책, 손님이 좋아하는 책 정도를 구분한다는 검사다. “주인이 적당히 몰라야 재미있지 않겠어요?” 속간하기 전의 《창작과비평》 마지막 호를 2000원에 팔았는데 알고보니 2만-3만원 하더라. 대부분의 책들은 정가의 30-40%선.

한 손님은 김홍호의 《양명학 공부 2》를 뽑아 한참 뒤적이고 유재현의 《시하늬 빌 스토리》와 레비나스의 《시간과 타자》를 만지작거렸다. 퇴근 뒤 종종 들르는 단골이었다.

요즘은 하루 10건 30-50권이 나간다. 다들 경기가 안 좋으니 그러려니 한다. 부부가 함께 일해 가겠세 내고 생활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큰 방향은 천씨 뚝, 입력이나 배송 등 꼼꼼이는 아내 지성경(40)씨 뚝이다. 부업으로 식당에 위생물수건 기계를 빌려주고 재료를 대는 일을 한다. 지금보다 2배 정도만 불리면 괜찮을 거라는 희망이다. 현재 부장급인 옛 직장의 동료들이 퇴직에 몰려 막막해 한다면서 자신은 일찌감치 방향 전환해 다행이라 여긴다.

나오는 길은 깊은 밤에서 초저녁으로 가는 느낌. 북카페에 손님이 들성들성하고, 큰 길에 좀더 가까운 숯불갈비집은 고기굽는 냄새가 진동했다. 금세 두고온 책방이 그리운 것은 추위 탓만은 아니다.

36. ‘아름다운 가게’서 뺏어나온 책방... 책은 기증받고 직원은 자원봉사

뿌리와 새싹

얇게 화장한 여인처럼 페인트와 니스 냄새가 난다. 신촌의 헌책방 ‘뿌리와 새싹’(02-392-6004)은 지난해 12월에 문을 연 새내기다.

어쩌면 이렇게 찾아가기 힘들도록 꼭꼭 숨었을까. 가까운 신촌역은 자투리 경의선을 지키는 화석과 같은 존재. 횡단보도 앞에서 책방 가는 화살표 구실을 하는 신촌지구대 역시 유동인구와는 무관하다. 골목길을 15미터 정도 걸어 오른쪽으로 틀면 다시 더 좁은 골목. 막다른 끝에 다른 한옥들과 이마를 맞대고 있다.

책방 입구. 우선 나무가 심겨진 양변기로 마음을 추스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을 들어섰을 때의 놀라움을 책임 못진다. 카페! 벽과 책꽂이의 아기자기한 책들은 여기저기 앙증맞게 앉은 곰인형과 함께 소품이다. 납작 테이블에 시디플레이어와 난로가 있고 그 앞에 앉은뱅이 의자가 두어 개. 중간에 자리잡은 책속의



그림 35: 뿌리와 새싹

빈티가 책방의 중심을 잡고, 맞은 편 싱크대에 녹차(200원), 커피(300원)를 마실 수 있는 다구가 진열돼 했다. 테이블과 의자가 없다 뿐, 그냥 북카페다.

헌 물건을 재활용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해 전국에 59곳의 매장을 둔 ‘아름다운 가게’(공동대표 박성준, 손숙, 윤팔병)에서 헌책만을 특화해서 개설한 ‘뿌리와 새싹’은 파주 ‘보물섬’에 이어 두번째 전문 헌책방이다. 설립 취지에 걸맞게 인테리어 컨셉트도 재활용이다. 헐린 집에서 나온 붉은벽돌을 바닥에 깔고 기와로는 벽을 꾸몄다. 수출품 포장을 하고남은 송판이 창문 자리에서 게시판이 되고, 음식점 카운터는 시디플레이어 테이블이 되었다. 테이블의자의 다리밑동을 툯 잘라 뉘고 그 위에 등받이를 없으니 훌륭한 앉은뱅이 의자다.

재활용 책과 인테리어 속에 싱싱한 사람들이 무척 대조적이다. 3년 전 아름다운 가게에 들어와 ‘움직이는 가게’를 맡다가 지난해 12월 이곳 책임자가 된 박하재홍(29) 간사. ‘책을 잘 모른다’고 하는데 의욕이 철철 넘친다. 12월 매출이 750만원. 개점 프리미엄 탓에 다소 높게 나온 편이기는 하나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면 그 정도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직원(?)은 모두 자원봉사자. 주부, 직장인, 프리랜서 등 18명이 돌아가며 일주일에 하루 하나절씩 판매를 돕는다. 카운터의 최혜인(26)씨는 일러스트레이터. 앞치마를 곱게 두른 그는 ‘자원봉사를 왜 하느냐’는 질문에 ‘뭐 그딴 질문이 있냐’는 표정으로 그냥 “좋아서요”다. 주점을 헌책방으로 탈바꿈시킨 두 디자이너는 재료값만 받았다는데 제비집 책꽂이를 다는 등 아직도

머물면서 마무리 손을 보고 있다.

뽑아온 게 아니라 기증받은 책인 만큼 편차가 크다. 《울어라 사랑하는 조국아》(앨런페이튼, 분도출판사), 《축구전쟁》(김별아, 웅진), 《스물네 개의 눈동자》(쓰보이 마사메, 문예출판사) 《베토벤의 머리카락》(지호), 《사랑 그 짓곳은 이야기》(박용수, 소나무), 《술꾼》(이은홍, 사회평론), 《미국속담사전》(옥스퍼드대출판부) 등이 눈에 띈다. 한 손님은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원서를 뽑아들고 의외의 만남이라며 즐거워했다. 가격은 아주 싸다.

책방에서는 한쪽에 전시공간을 두어 2월에는 새만금 관련 도서, 3월에는 평화 박물관 관련 자료 등을 전시할 계획이다. 여는 시간은 월-토 오전 11시-오후 7시. 책방이 쉬는 오후 7시부터, 법정 공휴일은 오전부터 모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준다. 1인 1000원 또는 1인 1책 기부는 권장사항.

37. 밥벌이도 힘든 ‘35년 책장사’ “밥없인 못살지” 음식장사 할 작정

천지서적

오후 3시30분 성동구 독성 천지서적(02-469-2107). 손전화 번호가 적힌 ‘식사 중’이란 쪽지가 유리문 안쪽에 걸린 채 문은 잠겼고 밖에는 굳이 집어가지 않을 책과 비디오 무더기가 헌책방을 지켰다. 간판에는 옛날돈, 우표 판매는 물론 열쇠복사, 달린 문 출장수리도 한다고 되어 있다. 전월세방과 연락처가 쓰인 종이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주인은 잡식성인 듯하다. 전화를 하고 15분 동안 주변을 완전정복 하고서야 나타난 주인 변희대(52)씨는 식사 뒤 입을 부신 흔적이 없고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에는 역시 미안해 하는 느낌이 없었다.

“바람 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다니는 게 인생이지요.”

기다리면서 엇본 대로 책방 안은 한치 어긋남 없이 정돈돼 있다. 책꽂이에는 수필, 소설, 실용서, 참고서, 각종 수험서 등이 분야별로 꽂혀있고, 군데군데 키를 넘는 책탑들은 바닥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자로 재며 쌓은 듯하다. 미로같은 책 사이를 서너 바퀴 돌도록 눈에 띄는 책은 없고, 주인은 문 근처, 주렁주렁 달린 복제용 열쇠꾸러미판 옆에서 알듯말듯한 이야기를 계속했다. 자꾸 걸가지를 쳤지만 주인 변씨의 자초지종은 이렇다.

12살 무렵 부산에서 가출 상경. 처음에는 구걸로 연명하다가 성수동, 천호동, 금호동 일대 요꼬공장을 전전하면서 입에 풀칠을 했다. 17살 무렵 청계천 시장에



그림 36: 천지서적

서 헌책장수가 책을 사고파는 것을 보고 흥미가 일었다. 책방주인한테 통사정을 해 장사이치를 배워 리어카로 잡지를 팔았다. 그러다 독섬 경일초등학교 후문 근처 가정집을 사글세로 얻어 헌책과 고물장사를 했다. 짬짬했다. 하지만 “형아들이 쥐패고 돈을 빼돌어가고” 때로는 문을 부수고 물건을 가져갔다. 나이 들면서 차츰 자리가 잡혔고 돈도 모였다. 서른 살에 “뽕갈 만큼 글씨를 잘 쓰는” 처자와 결혼했다. 그렇게 헌책방 35년. 버젓한 점포, 단독주택에 장성한 두 아들이 있다.

손님이 와서 얘기가 끊긴 틈. 천장에 붙여진 ‘천지서적 지하 40평’이란 쪽지가 눈에 들어왔다. 3-4년 전 월세부담에 방을 빼고 책을 파짓간으로 실어보내기 전 지하매장을 겸했던 시절의 자취다. 13년 전에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세든 점포가 재건축으로 헐리면서 부평으로 이사했던 게 화근. 아내는 당구장을 열고 자신은 과일야채 행상을 했다. 소개받을 때 복적이던 당구장은 인수하자마자 손님이 뚝 끊겼다. 사기였다. 돈과 함께 아내도 잃었고 상경해 다시 시작한 책방은 사글세였다. 작년에는 두 아들과 오순도순 살 꿈에 거처는 옥탑방일 망정 전세 끼고 단독주택을 샀다. 군대로, 시실로 두 아들이 떠나고 자신은 전기장판과 이불을 옮겨와 책방 뒤 골방에 기거하는 마당. 20년 된 건물은 자꾸 손을 벌리고 자신은 집을 관리하는 머슴이다. 복덕방에 속았다는 생각이 든다.

겨울 해는 짧아 6시를 넘자 어두워졌다. “오늘은 손님 것 두 권을 포함해 14000 원어치를 팔았어요.” 김밥 한줄, 봉어빵 몇 개, 개업점포의 부침개, 커피 석잔. “모

이가 뵈면 후르륵 날아와 쪼아먹는 참새처럼” 그가 오늘 먹은 것의 전부다. 아 들들한테는 차마 이런 말을 못한다. “아까도 사실은 점포를 알아보려 이야기하던 중이었어요.” 음식장사를 엄두에 두고 있다. “책은 공짜로 쥐도 집어던지는 사람이 있지만 밥은 안 먹고는 못 살잖아요.” 4월이면 헌책방 또하나가 없어진다.

38. 지하+2층, 100평에 꽉찬 책… 전국서 제일 큰 소매 겸한 도매상

책읽는 마을

형제가 다시 뭉쳤다. ‘책읽는 마을’(02-373-6564·서울 은평구 증산동 163-6)의 이연수(52), 경수(47)씨가 그들. 경수씨가 증산에서 응암을 거쳐 증산동으로 돌아 오는 동안, 연수씨는 역촌동, 광명시, 서울역 앞을 거쳐 9년여 자동차용품점으로 걸길을 걷다가 ‘책읽는 마을’에 합류했다.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죠.”

동생 경수씨는 책방 경력 30년, 형보다 선배다. 헌책 도매부문 마당발로 그를 모르면 간첩이란다. 서울외곽, 인천, 제주, 전주, 수원 등 전국에 책을 댈다. 몇 남지 않는 소매를 겸한 도매상 가운데 가장 크다.

6호선 지하철 증산역 4번 출구에서 멀잖은 한국빌딩 2층. 문을 들어서면 와락 펼쳐진 책의 바다가 가슴을 뛰게 한다. 45평. 지난해 5월 형 연수씨가 합류한 것은 경수씨가 건강이 악화되었기 때문. 헌책방 전반적인 불황과 지하매장에서 햇볕을 보지 못한 탓은 아닐까. 한길 가 해가 드는 이곳으로 옮기면서 이사비만 천만원이 들었다.

옛자리로 옮기면서 이사 통에 꿇겼던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온다. 형 연수씨는 서울역 앞 ‘별빛서점’ 때 명함첩을 들춰봐도 연락처가 빼빼나 사무실 전화여서 하릴 없더란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책값이 거의 그대로여서 적응하기 쉽다.

“인사동입니다.” 담배를 피워문 손님이 손전화를 받았다. “97년 동아연감 필요 없나?” 직원을 두고 자신은 여기저기 책방을 돌면서 책을 수집해 파는 모양. 이것 저것 뽑아 5만원어치를 계산하고는 한바퀴 더 돌아 한권을 더 없어 돈을 치렀다. 주인이나 손님이나 덤 한권은 모른 체다.

《삼국연의》(모두 4권, 연변인민출판사)가 이 빠진 채 쏘쳤고 휴대용 《한국의 새》(엘지상록재단), 혜성서점에서 보았던 《쌍훈기봉》 낙질이 보였다. 영인본이



그림 37: 책읽는 마을

무척 많은 게 특징. 《한국한시문전집》 《한국문헌설화전집》 《상해 독립신문》 《한국구비문학대계》 《여지도서》 《서산민속지》 등의 거질이 표도 없이 쌓였다.

특별개방한 지하는 55평, 그야말로 책창고다. 이곳 책은 서늘한 온도 탓에 서물이라기보다 냉동창고의 사과나 동태 같다.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용으로 설계한 듯 홀과 여러 개의 방으로 되어 책을 돌아보는 게 술래잡기 하는 듯하다. 연수씨는 책의 대강 소재는 알지만 자세히 모른다면 손님들이 와서 필요한 것을 고른다고 전했다.

“전에는 기자 손님들이 많았어요. 책도 많이 보고요.”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학구열이 줄었는지 수입이 줄었는지 모르지만 책을 멀리하는 요즘 세태와 무관하지 않을 게다. 서울역 앞에서와는 달리 도매상이 주요손님이어서 전화로 거래하고 드나드는 일반인은 그리 많지 않다. 처음 들어섰을 때의 놀라움은 9년만의 기억에 방문자에 대한 반가움이 겹쳤을 터.

“형제가 함께 사진을 박자”는 말에 두 사람 다 손사래를 쳤다. 아픈 사람은 사진을 찍지 않는다면... 입구의 세워둔 자전거는 운동치료용. 불광천변 산책로에서 약해진 몸을 다스린다. 형제가 함께여서 그나마 가능하다. 불광천 변에 봄이 오면 경기도 풀리고 손님들도 많아지지 않겠는가. 덩치 큰 이무기가 작은 못에서 운신을 못해 몸살을 앓듯이 ‘책 읽는 마을’의 작은주인 역시 그런 것은 아닌지.

39. “주머니 얇은 서민들 생각해 마음 비우고 책장사 합니다”

태인서점

지하철 5호선 동남쪽 종점 마천역을 나서면 코끝이 싸하니 공기부터 다르다. 남한산 북서 등산로 입구라 등산복 차림의 사람들이 간간이 눈에 띄고 추리닝 차림의 여자가 강아지를 끌고 산책을 한다. 조봇한 차길, 초록색 지선버스가 지나고 철물점, 비디오점, 지물포 등의 점포가 아침 일찍 문을 연다.

용마가 나왔다(마산), 말에게 물을 먹였다(마천)는 등 임경업과 관련된 지명이 있으나 이곳이 병자호란 때의 전장이었고 그 역시 호란과 관련해 비극적인 삶을 산 탓에 훗날 부회된 전설로 추정된다.

서울시에 편입되기 전 한적한 농촌이던 이곳이 사람들로 북닥거리게 된 것은 60년대 말. 청계천 주변 판잣집 철거민들이 대거 이주하면서부터다.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창 골목길로 어지럽게 얽혔다. 80년대 재개발 붐과 함께 빈민가 티를 벗었고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들어서 쾌적한 이전 시골읍내 분위기를 풍기게 되었다.

마천1동 사무소 앞 건널목 건너 바로라는 말에 쉽게 찾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결국 전화를 넣고야 말았다. “전화한 사람 맞지요?” 사람이 찾으러 나오고 길 건너에서 사람을 부르고, 굳이 건널목이 아니어도 눈치로 길을 건널 수 있는 곳. 태인서점(02-403-6215)은 길에 걸쳤으며 시장 맞은 편인데다 골목으로 꺾어 들어가 두번째다.

“근처 세군데 책방 가운데 두 군데가 문을 닫았어요. 그만두고 싶지만 우리가 계마저 없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질 것 같아요.”

주인 박영기(54)씨는 20여년 전 청계천에서 서점을 하던 중학교 동창의 권유로 헌책 세계에 발을 디뎠다. 친구와 함께 이발소를 차렸다가 10여년 과일·생선 노점을 해서 모은 돈 1600만원을 날린 뒤끝이었다. 80년대 초 헌책은 날개가 달렸다. 학기 초에는 하루 매출이 80만~100만원에 이르렀다고 안주인이 거들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순회하는 고물상이 20군데쯤 돼요. 무게 늘린다고 파지에 물을 뿌리는 중에 눈치보면서 고물자루를 풀어헤쳐 고르고 챙기고... 다시 원래대로 해 놓아야 하고, 여름이면 땀범벅이죠.”

아홉 살부터 책방에서 자란 딸은 공부를 잘해 시험만 보면 척척 붙었다. 만화본다고 잔소리 많이 했는데,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왔고 결혼한 지금 다시 고대 3



그림 38: 태인서점

학년이다. 책을 팔면서 버릇처럼 딸 얘기를 한다. 사람은 책을 많이 보아야 공부를 잘 한다고.

“장사가 안돼 건물주한테 월세 5만원만 깎아달라고 말했더니 7년 전 그대로라고 하더군요.” 박씨는 겨울 동안 앙고라 장갑 도매를 한다. 딱 두달 책방은 부업이다. 그렇게라도 길이 열리니 고마운 일이다. “2-3년 전부터는 다들 어려워해요. 하지만 잘 사는 사람이 어디 헌책 사봅니까.” 스스로 서민층이려니와 서민층이 사는 곳에 헌책방을 연 게 도리어 헌책방을 그만두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7평. 이중 책꽂이에 알뜰하게도 꽂히고 쌓였다. 소설책과 어린이책이 많은 가운데 《인간복제 그 빛과 그림자》(궁리), 《키루스 2세》(소담), 《마크 트웨인 여행기》(상하, 범우사), 《전쟁의 기억》(1-3권, 책세상) 《한국 불상의 원류를 찾아서》(대원사)가 눈에 띈다.

“건강한 것만도 복이지요. 마음 비우고 삽니다.”

40. IMF 때문에 붓 꺾은 미술학도가 운영...비싸도 수준있고 깔끔한 책만 다뤄

가자헌책방



그림 39: 가자헌책방

가자헌책방(02-456-6002, gajagajabook.co.kr)에는 그림이 있다. 60-80호짜리 유화 10여점. 벽에 걸리기 마련인 그것들이 구석에 겹쳐 세워져 있다.

주인 김씨는 올해 마흔 셋. 96년 청파동 화실이 문을 닫기 전까지는 창창한 미술학도였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원로화가 밑에서 12년간 사숙하면서 상형전, 목우회, 신기회 등에 여러 차례 입선도 했다. 스승을 닮아 원색계열의 정물과 풍경화를 주로 그렸다. 아이엠에프는 모든 것을 바꿨다. 화실이 문을 닫으며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 역시 결혼과 함께 그림 외에 돈 되는 무엇인가를 해야 했다. 책 모으던 취미를 살려 중곡역 앞에 헌책방을 차렸다. 3년 만에 접었다. 경험 부족을 실감했다. 그 무렵 둘째를 낳았고 간간이 잡았던 붓을 완전히 놓고 중간상일에 매달렸다. 그렇게 2년이 지나자 책방과 책의 이치가 눈에 들어왔다. 그만두는 우이동의 한 서점을 인수하면서 공간이 필요했고 마침 대원외고 앞에 빈대가 나서 얼결에 책방 간판을 달았다. 25평을 빼곡하게 책으로 채웠다. 지금은? 사방벽을 제외하고는 중간을 텅 비웠다. 화실을 겸할 것인가, 다시 책으로 채울 것인가. 구석에 겹쳐둔 그림들이 자꾸 소리를 친다.

물감처럼 굳은 손에 붓이 잡힌대고 전과 같은 붓질이 나올지 의문이다. 비워둔 공간은 책꽂이에 책을 꽂기 전 분류하고 손질하는 곳으로 쓴다. 그림붓 역시 먼지떨이 그대로다. 그나마 미술책은 보이는 대로 집에 가져다 두었다. 주인 김씨가 오기 전, 안주인 이옥랑씨가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몇 차례 둘러보아도 미술책이

보이지 않은 것은 그 때문. 《분교-들꽃 피는 학교》(강재훈, 학교재)를 뽑아두고 계산을 할 때 카운터의 김씨는 그 책을 기억했으며 그 옆에 꽂힌 《백제금동대향로-고대 동북아의 정신세계를 찾아서》(학교재)도 복기해냈다. 미술책은 아니되 관련이 있기 때문.

“전시회 열려면 돈이 필요해요. 팸플릿, 대여료, 액자값, 음식값 등 1500만원 줌...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시간도 문제다. 낮동안 책을 찾아다니고 밤에는 목록 올리느라 잠이 없다. 세 아이들 때문에 4시에 아내와 교대해 밤 10시께 들어가니 부부가 얼굴 맞닿 시간조차 짧다. 여기저기 흔적처럼 남은 꿈들을 엮으면 언젠가는 다시 붓을 잡고 개인전도 열 것이라고 믿는다.

미술책을 제외하면 꼼꼼하게 모아들인 인문사회, 철학 책의 수준이 무척 높다. “적게 벌더라도 아무 책이나 팔 생각은 없어요. 밑줄이 있거나 도장찍힌 것도 될수록 취급 안해요. 값이 조금 비싸지만 여직 회원들 불만은 없습니다.”

시작 무렵 몇 되지 않던 인터넷 책방이 전국 60-70곳, 서울에만 40-50곳이다. 날로 경쟁이 치열해져 규모가 큰 곳을 빼고는 매출이 고만고만하다. 책 확보가 열쇠. 그동안의 간간한 이미지도 유지해야 하고 책을 팔려는 사람들도 높은 값을 요구하기 때문에 적절한 값으로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만 막상 그렇게 됐을 때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명함 대신 받은 스티커는 알록달록 촌스러움의 극치. 도저히 미술가 책방의 것이 아니다. “그것도 열걸에 만들었어요.” 아무진 꿈과 영겁결의 결정이 뒤섞인 책방에서 외고학생 하나가 지갑을 툭툭 털어 두툼한 꿈 2개를 건져갔다.

41. ‘새 책방 속의 헌책방’ 21년째 생존... 총각사장 올해안 고서박물관 꿈

서적백화점

책방의 서가는 일종의 길. 수많은 사람들이 열 지어 지나며 책을 빼어 형태를 허물고 주인은 똑같은 또는 새로운 것으로 그 자리를 메운다. 그들이 허물고 다시 쌓는 것은 책이 아니라 꿈인 것. 그러기에 사람의 행렬과 허물고 쌓음이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겠는가.

서적백화점(577-9876, 강남구 개포동 168-8 석일빌딩)은 곳곳이 파헤쳐진 도로 공사판 같다. 새학기가 겹치기도 했거니와 책의 흐름이 빨라 그런 느낌이 더하다. 몇몇 대형서점이 도시에 군림하는 터에 이 책방이 늪연하게 버티는 까닭은 무엇인

가. 한마디로 박리다매다. 싸게 팔 수 없는 것을 빼고는 모두 싸게 팔고 그 한도는 인터넷서점과 비슷하다.

주인 정도현(43)씨나 열다섯 직원들은 책의 흐름에 응해 끊임없이 움직여 여벌의 틈이 없다. 책과 손님과 일체가 된 흐름은 책의 농도나 매출의 밀도를 반영하듯 끈적끈적하여 국외자가 끼어들기 민망하다.

사우나처럼 후끈 달아오른 250평 공간의 한켠. 문과 동시에 계단을 오르면 ‘새책방 속의 헌책방’이다. 40평 공간에 각종 중고교생용 참고서와 어린이책이 3/4을 차지하고 그 책의 뒤편 또는 나머지 공간에 일반 헌책이 그림자처럼 존재한다. 학부모와 자녀들이 따로 또 함께 부산하게 책을 고르고 계산한다. 학기초가 지나면 평상시의 표정으로 돌아갈 터이다. 헌책방 뒤쪽 책창고에서 책무치 위에 앉은 채 정씨와 마주했다.

“신간과 헌책은 상보적인 관계입니다. 없는 책을 서로 보완하고, 얇은 주머니 사정을 보완해주죠.” 윤팔병(현재 아름다운 가게 공동대표)씨한테서 독립해 헌책방을 차린 것은 85년. 말죽거리 은광여고 골목에서 시작해 89년 이곳 개포고등학교 옆으로 이사하면서 새책을 겸하게 되었다. 지금은 관계가 역전돼 헌책방은 매출의 10% 안팎에 지나지 않는다.

“새책은 정해진 값에 물건이 오간다면 헌책은 덤으로 정이 오간다고 할까요. 헌책 손님은 느낌이 각별해요. 단골관계가 생기는 것도 헌책입니다. 손님이 무엇인가 건져가면서 흐뭇해하는 모습이 보이고 저 역시 덩달아 기분이 즐거워지죠.”

새책은 대형서점, 인터넷서점, 홈쇼핑, 마트 등이 무한경쟁하는 분야. 50-100곳의 동네책방과 맞먹는 그들과 겨루려면 값이나 구색에서 죽을 힘을 다해야 버틴다. 그나마 한숨을 돌리는 쪽이 헌책방이다. 20여년의 노하우가 있으려니와 속도가 느리지만 열심히 하는 만큼 표가 나는 정직한 분야다. 새책을 출납하고 손님을 응대하느라 잔뜩 긴장된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공간도 이곳이다.

하지만 새로 뽑은 직원은 이곳을 쓰아해한다. 힘들고 지저분하다는 선입견 때문. “헌책 10권을 재활용하면 나무 한그루를 살린다”면서 직원을 설득하고 손님들한테 홍보해 지금껏 그 공간을 유지한다. 영수증에 “헌책방문 매입합니다”란 문구를 찍어 발행하고 책값 산정은 정씨 자신이 직접해야 할 때가 많다. 매출만 따져서는 결코 유지할 수 없다. 헌책시장이나 정씨 자신이나 출발한 곳에서 한참 멀리 와 있는 셈이다.



그림 40: 서적백화점

미혼인 그는 올해 안에 ‘신방’을 꾸민다. 문막에서 10-15분 거리에 100평 규모의 고서 박물관을 열어 옛 교과서, 각종 초판본, 희귀본을 전시할 계획이다. 20여년 연애를 해온 고서들이 일정한 테마를 갖췄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둘러보아 ‘느낌’을 가질 정도가 되었다는 판단이다.

과부는 은이 서말, 홀아비는 이가 서말이라는데, 우리 총각 사장은 웃음이 서말이다.

42. 두 번의 문화단절기 헌책방이 다리역... 책방 주인은 좋은 책 권하는 컨설턴트

할

복개를 겨우 면한 신림천이 콘크리트 옹벽에 갇혀 바닥을 보이는 반면 양쪽 차길에 흐르는 차량과 물류의 용용함은 냇물을 압도한다. 신림천이 이처럼 졸아든 것은 관악산 기슭에 서울대학교가 틀어앉아 물을 켜고 대학촌이 작은 물길들을 흡어 없앤 까닭이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오며 물길이 넓어지듯이 언덕을 굽어내린 길이 천변 길을 만나 넓어지며 주거지는 상업지로 색깔을 달리한다. 그 길목에 술집과 찻집이



그림 41: 할

우선 착점하고 그 사이를 기타 다른 것들이 메우는 모양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당장 눈에 띄지 않으나 좌고우면 하면 금세 존재를 드러내는 게 헌책방이고 신림9동에서는 그 이름이 ‘할’(016-9337-0006)이다. 내어붙인 차양 아래 책꽂이의 책들이 막 달아낸 조화처럼 선명하다. 새 헌책을 툭툭 좌판에 던지는 사내의 완강함과 겹쳐 ‘할’은 쉽게 속을 내줄 것 같지 않다. 세로로 긴 사각형 책벽 가운데 두 줄의 책꽂이를 두었고 높은 공간 위쪽을 툭 잘라 다락을 들었다. 분야별로 잘 정리되어 허투루 빼어들어 뒤적거리기 민망하고, 눈높이를 중심으로 완급을 두어 손님의 시간차까지 계산한 흔적이 뚜렷하다. ‘잘 빛은 향아리’ 같달까.

“우리 출판문화는 두 차례 커다란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1970년대 세로짜기에서 가로짜기로의 전환과 80년대 말 사회주의 동구권의 붕괴가 그것입니다.” 70, 80년대 ‘-읍니다’ 체로 표기된 책들과 세로조판의 책들이 그 안에 담긴 콘텐츠와 무관하게 마구 버려졌다. 사회주의의 몰락과 함께 사회과학 출판사들은 허둥댔고 그들이 낸 도서들 역시 서재와 도서관에서 마구 쏟아져나왔다. 그들이 버린 책은 분명 ‘종이와 활자’일 테지만, 시대를 대표하고 시대를 고민하는 지성의 집약체였다.

인터뷰를 사양하겠다는 주인 최불초(46)씨는 책방 이야기를 하지는 타협안을 내자 헌책방 문화론을 도도하게 풀어냈다. “예컨대 삼중당문고, 신구문화사판 세계전후문학전집에는 지금도 살려 쓸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중역이어서 어설픈

느낌은 있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출판문화의 바탕이라는 거죠. 《들어라 양키 들어》가 60년대에 이미 번역돼 소개되었습니다.” 헌책방은 책의 주인을 찾아주는 것 외에 단절된 시대를 잇는 다리 구실을 해야 한다는 지론이다. 그래서일까. ‘할’에는 ‘쓰레기’가 없다.

“요즘 인터넷이다, 시디다 해서 백과사전을 사지 않습니다. 부피만 커 공간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두 가지는 지식을 파편화해 총체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지식의 깊은 세계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는 ‘납작세계’에 지친 사람들이 ‘통짜세계’로 돌아오고 있다고 믿는다. 당연히 헌책방이 사양산업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헌책에 대한 생각과 헌책방을 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뿐이다. “헌책방에 가면 좋은 책이 있다는 신념을 준다면 승산있는 분야입니다.”

“책방 주인은 전달자를 넘어 컨설팅을 해야 합니다. 손님의 취향을 파악하여 적합한 책을 구해와 권하면 백이면 백 책값 흥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옛 잡지를 모으고 읽는 게 취미다. 《다리》《정경문화》 등 종합잡지를 읽다가 요즘은 문학잡지로 무게를 옮겼다. 서지에 대한 지식이 전달자 또는 컨설턴트의 도구인 까닭이다. 헌책방을 꿈꾸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열 생각도 있다. 경영, 서지, 입지, 유통구조 등 한달 정도면 기본지식은 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아직은 모든 것을 버리고 가면 속에 침잠해 진정한 나를 찾고 싶습니다.” 그가 삭발을 하고 “할”을 외치는 까닭이다.

43. ‘재고도서 전문’ 시장개척 앞장 12년

책창고

헌책방 네트워크화로 유통개선 꿈도

‘책창고’는 서울 동작구 남현동, 강동구 길동, 경기도 일산, 분당 등 네 군데에 있다. 한때는 신림동 ‘서울대점’을 합쳐 다섯 군데였다. 남현동 책창고(02-582-1617·bookagain.co.kr)가 본점이고 일산점은 일종의 지점 겸 물류창고다. 길동과 분당은 이곳 직원이 독립해 차린 곳으로 이름만 같다. 분당은 새책방으로 바뀌어서도 ‘책창고’다.

본점인 남현동 책창고의 모태는 1988년 대치동의 10평짜리 ‘고전서림’. 95년 50평으로 넓혀 재고서적을 위주로 ‘책창고’ 간판을 달았다. 2000년에는 온라인 헌책



그림 42: 책창고

방, 2001년에는 일산점을 열었다. 2004 사당동을 거쳐 2005년 지금 자리로 옮겨와 동지를 틀었다.

“재고도서 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대형서점의 새책 매대는 길어야 일주일 정도 신간을 전시할 뿐입니다. 잘 팔리는 몇몇 종을 빼고는 후속 신간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시야에서 사라지죠. 그러면서 양서조차 독자들한테 충분히 전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주인 이천우(53)씨는 별도의 재고도서 시장이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재고도서 하면 덤핑, 수준미달, 파본 등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 정상적으로는 팔리지 않을 책과 평균을 밑도는 수준의 아동도서를 중심으로 유통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서점매출이 전산화되어 한달 정도면 신간의 운명이 판가를 납니다. 이르면 그때부터 신간이 재고로 유통되죠. 우리나라는 출판사들이 모두 떠안습니다. 초판 2000부를 찍으면 평균 1000부 가량이 재고로 쌓이고, 소진될 때까지 무한정 묵힙니다. 출판사로서는 돈이 쟁여지고 더 이상의 독서인구 확장을 막습니다. 새책값으로 아깝지만 반값 정도면 비용을 지불할 독자군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는 96년 출판사 700군데에 편지를 보내 여덟 군데서 창고의 책을 대량으로 인수했다. 그 뒤 문 닫거나 이름이 바뀐 곳에서 수차례 많은 책을 사들여 유통시켰다. 3년 동안 지하철 매장을 열기도 했다. 혼자서는 소화하기 벅차 결국은 유통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현재는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때 출판계에서 재고도서 유통을 검토했어요. 하지만 내부 이견으로 흐지부지 되었죠. 신간이 팔리지 않는다, 출판사 이미지가 나빠진다, 수지가 나빠진다는 거죠. 결과는 쌓아두거나 파쇄처리죠. 두 가지 모두 손해고 자원낭비입니다.”

이씨는 출판사를 설득하고 매장을 확보하는 등 누군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힘들지만 가치있고 보람있는 일이라면서...

그한테는 헌책방 네트워크화란 또다른 꿈이 있다. 온라인 책방도 따로따로 움직여 독자들이 책의 소재와 가격을 파악하는 데 불편하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동네책방’은 뿔뿔이 흩어져 있을 뿐더러 ‘창고 겸 매장’으로 운영돼 ‘있고 없음’이 파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온라인으로 이으면 유통이 빨라지며 헌책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은 뜻이 맞은 곳끼리라도 포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책창고에서는 6개월 안에 재고 3분의1을 털어낼 계획이다. 할인 판매도 하고 책을 좋아하는 동네 이웃들과 책잔치도 열 생각이다. 4년 동안 ‘인터넷책창고’를 통해 주인을 찾아간 책만 해도 36만권이다. “헌책방 주인들은 돈 크게 못 벌면서 자료 보관과 유통 기능을 하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돈만 아는 장사치 취급은 섭섭해요.”

44. 남편 대신 운명처럼 맡은 ‘자매의 삶터’

상계 책백화점

형광등 아래 푸근한 손님맛이 이물없다

지하철은 움직여 도시스럽다. 전동차가 점에서 점으로 달리고, 실려온 사람들은 어딘가를 향해 부지런히 옮겨간다. 승객이 멈추면 전동차가 움직이고, 전동차가 멈추면 승객이 움직인다. 도시스럽기는 밤낮이 구분되지 않음에서 역시 그렇다. 지하철에서는 자연시간이 멈추고 인공시간이 흐른다. 아침 10시반은 10:30, 낮 2시는 14:00이다.

지하철 4호선, 인공시간은 쌍문역을 지나서야 비로소 자연시간으로 회귀한다. 유리차창이 제 구실을 하면서 전동차와 승객 역시 문맥을 갖는다. 상계역 1번 출구를 나서면 덜 갠 시간각은 공간각조차 둔하게 만들어 책방을 코앞에 두고도 허



그림 43: 상계 책백화점

둥대게 만든다.

본디 입구는 좁게 마련. ‘상계 책백화점’(02-932-8233)으로 이어지는 하향 계단은 유난히 좁다.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가 더 좁다. 책방이 넓음은 들어가서야 보이고, 나오면서 책방의 넓음과 계단의 좁음이 비로소 만나기 때문이다. 책백화점에서 자연시간을 재차 잃어도 섭섭하지 않음은 그 잃음이 형광빛의 무시간성 탓이 아니라 책더미의 난시간성 탓인 까닭이다.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서현, 효형출판), 《중국고대음악사》(양인리우, 솔), 《검은고독 흰고독》(메쓰너, 평화출판사)은 틈입자를 장르와 시간과 공간의 현묘한 경계로 이끌지 않겠는가. 20여평 사방 책벽에 2×2 서가가 레일식 책꽂이 또는 허리춤 쌓기로 두겹씩이다. 중고교 교과서·참고서와 일반서적이 반반이다.

상계 책백화점은 자매가 운영한다. 언니 김순옥(51)씨가 매장을 지키고 동생 선옥(49)씨는 밖으로 돌며 책을 구해 들인다.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순옥씨는 도시락으로 점심을 이으며 책을 흘트리고 선옥씨는 궁둥이 붙일 새 없이 두 군데 지하에 책을 쌓는다. 이날도 잠시 얼굴을 비친 선옥씨는 사진기 앞에 몇 차례 서고는 훌어진 책을 찾아 휙 달아났다. 선옥씨의 남편 이강석씨가 결혼 전부터 도남동, 합정동, 부천 등지를 돌며 책방을 꾸리다가 이곳 상계동에 정착한 것이 14년 전. 남편은 신학공부를 해 목사가 되고 책방은 주로 선옥씨 몫이 되었다. 6년 전 사고와 백혈병으로 남편들이 잇따라 곁을 떠나면서 언니가 책마을에 합류하고 자매는

운명처럼 하나로 묶였다. 3년 전에는 방학동에 30여평의 분점(3491-4865)을 냈다.

망우동에서 이곳 대진여고로 전학온 한 학생이 엄마와 함께 교과서와 참고서를 한아름 고르고 방학동에서 왔다는 주부는 어디선가 잘못 산 책을 꺼내놓고 상의 끝에 다른 책을 안고 나갔다. 주인과 손님이 서가 앞에서 조곤조곤 터놓고 얘기하는 게 이물없다. 판타지소설 20여권을 묶어온 중년남자는 2000원에라도 사라며 떼를 쓰다가 그마저 안 되자 이쉽게 돌아섰다.

순옥씨는 일주일 두차례 화, 목요일은 6시에 퇴근한다. 다니는 교회에서 자신이 지휘하는 여성성가대에서 부를 노래를 고르고 연습하기 위해서다. 책을 워낙 좋아하지만 그렇게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그동안 1년 반에 걸쳐 신구약 전체를 필사하기도 했다. 지하 책방에서 땅 위의 현실로 돌아가는데 짧은 계단으로는 충분치 않은 게다. 주인은 성가대와 성경에의 몰입이 필요했고 틈입자는 방학점에 이어 혜성서점을 들러야 했다.

헌책방 목록

【 ㄱ 】

가자헌책방.....	73
고래서점.....	11
골목책방.....	24
굴다리 헌책방.....	49

【 ㄴ 】

노벨서점.....	26
-----------	----

【 ㄷ 】

대방 헌책음반 사고팔고.....	19
대양서점.....	16
대오서점.....	17

【 ㄹ 】

모아북.....	64
문화서점.....	23

【 ㅁ 】

뿌리서점.....	36
뿌리와 새싹.....	66

【 ㅂ 】

삼선서림.....	39
상계 책백화점.....	81
서적백화점.....	75
숨어있는 책.....	6
신광헌책.....	31
신림 현대서점.....	43
신촌헌책방.....	21

【 ㅅ 】

연남서점.....	4
영광서점.....	3
우리서점.....	7
의정부 헌책백화점.....	56
이태원 외국서점.....	33
인천 배다리 아벨서점.....	45
인천 부개동 책사랑방.....	47

【 ㅆ 】

작은우리.....	12
정은서점.....	50
진주 소문난 서적.....	38
집현전.....	34

【 ㅈ 】

책나라.....	58
책방 진호.....	41
책의 향기.....	52
책읽는 마을.....	70
책창고.....	79
천지서적.....	68
청구 헌책백화점.....	14

【 ㅊ 】

캘커타.....	29
크리스천 중고서점.....	63

【 ㅋ 】

태인서점.....	72
-----------	----

【 ㅎ 】

할	77
혜성서점	9
흙서점	28